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4

연구보고 06-R12-3

미국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과정 연구

책임연구원 : 김재온(The University of Iowa)

공동연구원 : 김상학(The University of Iowa)

한국청소년개발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06-18-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	한국청소년개발원
06-18-02	주요 선진국의 가족 및 자녀사회화 지원정책 비교연구	한국여성개발원
06-18-03	일본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게이오대학교
06-18-04	미국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아이오와 대학교
06-18-05	독일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베를린 자유대학교
06-18-06	스웨덴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남스톡홀름 대학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개발원	김현철 부연구위원 (총괄책임자) 김은정 부연구위원	손승영 (동덕여대) 이기재 (한국방송통신대학) 박현주 (함부르크 대학)
	한국여성개발원	장혜경 선임연구위원 홍승아 연구위원 김혜영 연구위원	정경자 (호주 사회정책연구원) 김보영 (영국 요크 사회정책학과)
협력 연구 기관	게이오 대학교	와타나베 히데키 교수	마즈다 시게키 (다이하치세메 경제연구소) 무쿠오 아사코 (게이오 대학) 배지혜 (게이오 대학)
	아이오와 대학교	김재은 교수	김상학 (아이오와 대학)
	베를린 자유대학교	서병문 교수	안드레아스 헤네커 (베를린 자유대학) 제스퍼 코글린 (베를린 자유대학)
	남스톡홀름 대학교	최연혁 교수	피터 스트랜브링크 (남스톡홀름 대학)

연구결과요약

- 이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뉜. 하나는 미국의 가족 및 가족 내 사회화 과정에 대한 기존의 조사결과 및 문헌을 정리한 부분과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 10,000세대의 중·고생을 대상(유효표본수 1,875명)으로 실시한 「가족 및 가족생활에 대한 조사」의 결과표로 나뉜. 결과표는 조사개요와 함께 부록에 제시하였으며, 분석은 이 연구의 종합보고서인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에 5개국 비교결과로서 제시되어 있음.
- 한국 사회의 청소년 노동과 비교했을 때 미국청소년들에게는 학업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대단히 보편적인 현상이며 그 과정 자체가 학교 졸업 이후의 본격적인 직업 활동을 위한 사회화 과정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음. 또한 청소년 노동에서도 일반 노동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별과 인종에 따른 구조적 불평등이 발견됨.
- 미국 청소년들의 임신과 낙태, 성병 감염 비율이 1990년대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성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 빈곤층 소수 인종 여성의 성병 감염률이 특히 높다는 점 때문에 청소년 성교육에 있어서 성병과 관련된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쟁점들은 한국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스 미디어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 거리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성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낳기도 함.
- 청소년 범죄와 폭력의 심각성은 지속되고 있으나, 실제로 범인 체포율에 근거한 청소년 폭력 범죄의 비율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학교와 인근 지역의 강력 사건의 빈도 역시 마찬가지로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미국의 청소년 사회화에 관련된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영향임. 오늘날 많은 수의 미국 청소년들이 양친-친부모 가정 이외의 가족구조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달라지는 부모-자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음.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에서,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불리함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필요 또한 대두되고 있음.
- 이혼율의 증가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조 출현, 사회화 과정에서 친구집단의 역할 증대, 여성 고용의 증대와 전통적인 성별분업의 변화 등은 지배적 가족 형태로 여겨지던 핵가족이 더 이상 사회화의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음. 전통적인 의미로서의 가족이 아닌 사회변화의 한 가운데에서 새로 정립되어 가는 가족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시기임.

목 차

I. 청소년에 대한 정의 및 특징	
1. 청소년에 대한 정의 및 특징	3
2.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4
II. 청소년기 사회화에 대한 이론	
1. 사회 문화적 재생산의 관점	9
2. 하위문화론적 접근	10
3. 생애과정론의 관점	12
2. 해석적 관점	13
III. 미국 사회의 청소년 실태와 생활모습	
1. 청소년과 노동	19
1) 청소년 노동인구의 변화	20
2) 청소년 노동 : 성별, 인종, 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이	21
3) 청소년 노동과 학업	26
2. 청소년과 성	27
1) 성 경험 실태와 변화 양상	28
2) 임신, 낙태 및 성교육의 문제	31
3. 청소년 폭력의 문제	33
1) 청소년 폭력범죄 실태	34
2) 청소년과 폭력범죄 : 인종, 민족 집단별 차이	35
3) 청소년과 학교폭력	36
IV. 청소년의 가족 내 사회화	
1. 자녀 사회화에 있어서의 부모의 영향	41
2. 청소년의 가족 내 사회화 연구경향 : 가족구조의 중요성	46
3. 청소년 사회화와 가족구조 변화의 영향	48
1) 청소년기의 일탈행동, 약물복용 및 가족구조의 영향	48

2) 부모-자녀 관계, 정신 건강 및 가족구조 변화의 영향	49
3) 가족구조의 영향과 기타 배경 요인들	52
4) 기존 연구에 대한 요약 및 정리	54
4. 가족구조 영향의 실제	56
1) 가족구조의 다양성	56
2)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만족도	58
3) 부모-자녀 간 생활시간 공유와 부모자녀관계	60
4) 부모-자녀간 신뢰 및 친밀도	62
5) 학업 성취에 대한 욕구와 전망	64
5. 가족 내 사회화에 대한 최근 연구경향	65
1) 지위 계승의 문제	65
2) 사회화를 설명하는 기본 메커니즘	66
6. 가족 내 사회화를 둘러싼 논쟁: 가족은 여전히 중요한가?	68
1) 결혼과 가족의 쇠퇴	68
2) 동료집단의 영향이 더 중요한가?	71
3) 여성의 경제활동이 자녀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73

VI. 결론

1. 요약 및 정리	79
2. 청소년 사회화 연구에 대한 제안점	82
※ 참고문헌	84

부록

1. 조사의 개요	95
2. 단순집계표	96
3. 질문지	114

표 목차

<표 I-1> 청소년에 대한 성인들의 부정적 인식경향	6
<표 III-1> 15-17세 청소년 노동인구의 비율 분포	23
<표 III-2> 남녀, 연령 계급별 경제활동인구 비율 (미국, 2004) 24	
<표 III-3> 15-17세 청소년 노동인구의 실업률	25
<표 III-4> 10대 청소년의 성경험 비율(%)	29
<표 III-5> 무기(총기 포함) 소지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의 비율	37
<표 IV-1>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	44
<표 IV-2> 미국 청소년들이 느끼는 부모님의 기대 비율	45
<표 IV-3> 자녀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자녀사이에서 나누는 내용의 변화	51
<표 IV-4> 가족구조의 형태 (N=4,365)	57
<표 IV-5> 인종/민족 집단별 가족구조의 형태	58
<표 IV-6> 부모-자녀 관계만족도: 성별 비교	59
<표 IV-7> 아버지-자녀 관계만족도: 가족구조에 따른 비교	59
<표 IV-8> 어머니-자녀 관계만족도: 가족구조에 따른 비교	60
<표 IV-9>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부모-자녀 공유생활 시간에 대한 노력	61
<표 IV-10> 학업성취에 대한 욕구와 전망: 가족구조 및 인종에 따른 비교	64

그림 목차

[그림 III-1] 청소년의 학업과 일의 병행에 대한 추이	21
[그림 III-2] 직업을 갖고 있는 16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들의 연간 소득추이	22
[그림 III-3] 10대 청소년의 성 경험 비율 추이 - 남녀비교 ..	30
[그림 III-4] 10대 청소년의 성 경험 비율 추이 - 남녀비교 ..	31
[그림 III-5] 10대 청소년의 성 경험 비율 추이 - 남녀비교 ..	31
[그림 III-6] 무기 소지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의 비율	38
[그림 IV-1]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순위	44
[그림 IV-2] 부모와의 문화 활동 공유	62
[그림 IV-3] 아버지와의 친밀도	63
[그림 IV-4] 어머니와의 친밀도	63

I. 청소년에 대한 정의 및 특징

1. 청소년에 대한 정의 및 특징
2.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I. 청소년에 대한 정의 및 특징

1. 청소년에 대한 정의 및 특징

청소년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Adolescence”는 “여전히 자라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를 갖는 라틴어 어원 “Adolescere”로부터 나온 것이다(Gumbiner 2003 : p18). 이는 청소년기가 단순히 성인이 되기 위한 예비 단계가 아니라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경험하는 지속적인 성장의 시기라는 사실을 함축한다. 청소년기에 대한 정의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연령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10대 초, 중반부터 10대 후반까지를 지칭한다. 구체적으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가 규정하는 청소년기는 10세부터 19세까지의 연령대를 의미한다. 미국 사회에서는 통상적으로 “Teenager”라는 용어에 적합한 12~14세부터 19~20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간주하는데, 연령대에 기초한 이러한 규정은, 한국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졸업 이후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학제에 따른 시기구분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청소년기를 비슷한 연령집단으로 나누는 까닭은 그 시기에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 때문이다. 청소년기에는 인생의 다른 어떤 시기보다 구별되는 독특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들은 청소년을 규정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간략히 살펴보면, 그러한 변화들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로 요약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 겪는 첫 번째 중요한 변화는 신체적 성숙이다. 이는 청소년기로의 진입을 알리는 일종의 징후 또는 표시이다.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남녀 공히 신장과 체중이 증가하고 2차 성징으로 요약되는 성적 성숙을 경험하게 된다. 신체적, 성적 성숙이 청소년기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까닭은, 외형적으로 성인의 모습과 유사해진다는 것 이외에도,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자신들을 향한 사회의 달라진 기대를 경험하기 때

문이다. 또한 신체적 변화를 겪으면서 청소년들은 스스로에 대한 일종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고, 동시에 성인들이 주체가 되었던 세계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한다.

둘째, 흔히 인용되는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표현에 함축된 바와 같이, 청소년기의 심리적 상태는 불안정하고, 충동적이며, 스트레스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묘사된다. 일탈이나 약물중독, 그 밖의 병리적 현상들이 청소년 연구에 있어서 주요 주제들로 등장하는 이유도 청소년기가 급격한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라는 점과 무관치 않다. 심리적 측면에 있어서 청소년기에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자아에 대한 관념이 구체화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자아 개념의 형성은 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지만,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의식이 구체화되는 것은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부터이다. 자아의 발달은 이전까지 당연시 해오던 가치체계의 변화를 가져오며, 그 과정에서 자신과 외부세계에 대한 구체적 가치관,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다.

셋째, 청소년들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과 관계의 변화를 경험한다. 가정, 학교, 동료집단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구체화시키고 점차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알아가게 한다. 또한, 일방적 보호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던 상태를 벗어나 타인들과의 상호의존관계를 유지해 가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특히 친구나 동료집단의 상호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일차적인 사회화의 장소였던 가정을 벗어나, 청소년들 스스로 소속감과 동료애, 집단적 정체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조건변화에 대한 일차적인 부적응 현상은 친구관계로부터의 소외나 고립 현상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된다.

2.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Hall(1904)이 처음 언급했던 “질풍노도의 시기”는 오랜 동안 청소년기의

특징을 함축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런 표현에는 흔히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 사회에서, 청소년기가 하나의 독자적인 생애과정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1900년대 초반부터 청소년기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예컨대, Hall(1904)이 묘사하는 청소년기는 반사회적 행동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안정한 태도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특징은 청소년기의 신체적 변화로부터 기인하는 호르몬 작용이라는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 Bandura(1964)는 그와 같은 평가의 상당 부분이 경험적 뒷받침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급격한 육체적, 심리적 변화를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한 부정적 행위 결과는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 즉 당시의 연구결과와 자료에 근거했을 때, 청소년들이 특별히 서로 다투는 경향이 강하거나 부모와의 관계에서 흔히 예상되는 바와 같은 빈번한 갈등을 경험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Arnett(1999)은 청소년을 바라보는 현대 미국 사회 성인들의 시각을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전통적 수사와 관련해 설명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성인들은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표현에 담긴 청소년기의 변화 양상을 보편적 특징으로 이해하지만, 자신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개개의 청소년들을 불안정한 존재로 여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청소년들을 하나의 전체 집단으로 사고해야 하는 경우, 대다수의 성인들은 여전히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관념에 치우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을 바라보는 전체 사회의 시각으로 표출되기도 하는데, 예컨대 청소년 비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을 때,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아울러 청소년 집단 전체에 대한 통제가 일반적인 지지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기성세대가 신세대의 사고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경향이 있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경험적 조사결과들은 미국사회에서 청소년 집단에 대한 인식이 더욱 부정적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I-1> 청소년에 대한 성인들의 부정적 인식경향*

조사	청소년에 대한 성인들의 부정적 인식	YES
Gallup (1946년)	현재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청소년 시절과 비교했을 때 더 부정적인 행위양식을 가지고 있다	46%
Gallup (1965년)	청소년들이 더 무책임하고 더 거칠게 변해간다	41%
CBS (1989년)	청소년들이 60, 70년대와 비교했을 때 더 이기적이다	81%
	물질주의에 경도된 경향이 더 강하다	79%
	부주의하고 신중치 못하다	73%

* Bostrom(2001), 1989년 CBS 뉴스 조사 결과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

Bostrom(2001)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1946년 갤럽 조사에서 미국 성인들의 46% 정도가 당대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청소년 시절과 비교했을 때, 더 부정적인 행위양식을 보인다고 대답했었다. 1965년 조사에서는 41%의 성인들이, 청소년들이 더 무책임하고 더 거칠게 변해간다는 의견에 동의를 표시했다.

1989년 CBS 뉴스에 의해 실시된 조사 결과는 청소년 집단에 대한 인식이 최근 들어 부정적으로 변해간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당시의 청소년들이 60, 70년대의 청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더 이기적이 되었다는 진술에 대해 조사대상 성인 중 81%가 동의를 표시했으며, 물질주의에 경도된 경향이 더 강하다는 의견에는 79%, 부주의하고 신중치 못하다는 의견에는 73%가 동의를 나타냈다.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킨, 더 애국적이라는 표현에는 24%만이 같은 의견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Bostrom(2001)은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도덕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Ⅱ. 청소년기 사회화에 대한 이론

1. 사회 문화적 재생산의 관점
2. 하위문화론적 접근
3. 생애과정론의 관점
4. 해석적 관점

II. 청소년기 사회화에 대한 이론

청소년 사회화에 대한 고전적 접근은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을 수동적 존재로 간주하며, 기존의 사회적 관습과 기술이 성인들로부터 청소년에게 전달된다는 일방향성을 전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구조기능주의 시각에 입각한 이러한 관점은 지속적인 이론적, 경험적 도전을 받게 되었고 청소년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 역시 다양한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사회 문화적 재생산의 관점, 하위 문화론적 접근, 생애과정론의 관점, 해석적 관점 등은 비록 서로 다른 이론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지만, 사회화 과정을 개인 차원의 단순한 학습과정으로 파악하는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대체적으로 최근의 이론들은 청소년기 사회화를 둘러싼 구조적 조건들에 주목하고, 청소년들 스스로 생산, 재생산해내는 청소년 문화에 초점을 맞추며, 또래 집단 혹은 성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부각되는 역동적 성격을 강조한다.

1. 사회 문화적 재생산의 관점

사회 문화적 재생산의 관점에서 청소년 사회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가정이나 학교 교육의 과정에서 발휘되는 계급, 성별, 인종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들의 효과에 주목한다. 이러한 시각을 대표하는 Bowles와 Gintis(1976)의 연구에서는 학교 교육을 통한 계급적 분화의 사회적 재생산을 특히 강조한다. 즉 자본주의 사회의 교육체계가 학생들의 계급적 위치에 따른 상이한 사회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직업 위계상의 서로 다른 위치에 걸맞게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위 계층의 학생들에게는 권위에 대한 동조와 순응이 중요한 덕목으로 부각되고, 상위 계층의 학생들에게는 기존 사회규범에 대한 내면화와 그들 상호간의 관계 유지에 대한 교육이 중요해진다. 특히 학업성적에 따른 서열화와 집단 구분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기존 사회에 존재하는 위계질서를 당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되어진

다. 계급 차이에 따른 차별적 교육 효과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은 이후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성별, 인종에 따른 교육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에도 널리 응용되었다(예컨대 Kessler, Ashenden, Connell, and Dowsett, 1985; Macleod, 1995; Valenzuela, 1999).

문화적 재생산 또는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의 개념 역시 교육을 통한 불평등 체계의 지속을 설명한다. Bourdieu와 Passeron(1977)에 따르면, 개개의 학생들은 부모나 교사와 의사소통하는 방식, 예술 교육에 대한 접근 가능성 등에서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문화적 자산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한 사회의 불평등한 계급 체계를 지속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 왜냐하면, 문화적 자산의 차이에 따라 학생들은 문화적으로 상이한 행위 유형을 갖게 되는데, 하위 계층의 행위 유형은 상대적으로 적절치 못한 것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학업 성취를 평가 받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이다.

사회 문화적 재생산의 관점은 불평등한 사회 체계와 개인의 계급적 위치와 같은 구조적 요인들이 어떻게 청소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그러나 사회화의 주체가 되는 청소년들의 주체적 능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 결정론적 설명 방식을 취한다는 점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Mehan et al, 1994). 또한 구조적 불평등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여타 조건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사회적 제약과 개인의 주체적 실천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2. 하위문화론적 접근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청소년 집단 나름의 문화적 독창성에 초점을 맞추는 하위문화론적 시각은 사회의 구조적 제약과 이에 대한 행위자들의 능동적 반응을 함께 고려한다는 장점이 있다. Parsons(1951)가 청소년 하위문화(youth subculture)라는 말을 처음 언급했을 때, 거기에는 청소년들이 공유하

는 반문화로서의 신념, 가치, 상징체계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러한 시각은 이후의 미국 사회학자들에 의해 널리 공유되어 주로 하위 계층 청소년들의 비행문화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하위문화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영국 버밍햄 대학 현대문화연구센터(Centre for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노동자 계급 청소년들의 집단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지배문화의 신념과 가치 체계에 도전하는 저항문화로서의 하위문화가 갖는 특징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Hebdige, 1979). 그들이 정의하는 하위문화는 한 사회의 구조적 위계 체계에 있어서 종속적 위치에 놓인 집단에 의해서 생성, 유지되는 가치 체계와 생활양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배적 가치 체계에 대한 도전 문화로서의 성격을 띠며, 동시에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려는 집단적 노력을 반영한다(Brake, 1985).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의 하위문화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기존 문화에 대한 반응으로 간주된다. 즉, 지배계급의 문화와 부모 세대의 문화라고 하는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두 가지 문화는 물질적, 관념적 제약을 강요하게 되는데 그러한 구조적 제약에 대한 반응의 한 형태로 하위문화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Wills(1981)의 연구에서는 지배계급의 문화와 부모 세대의 문화가 구현되는 장으로서의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하위문화의 성격을 갖는 반학교문화(counter-school culture)가 생겨나는지를 보여준다.

하위문화론적 접근은 사회화 과정이 단순히 기존 문화의 재생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행위자들이 보다 창조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하위문화론에 입각한 설명만으로는 주류 문화의 전승이라고 하는 사회화에 대한 전통적 해석을 함께 고려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아울러, 특정 집단의 문화로서 개념화되는 하위문화는 그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특정 집단 구성원들의 동질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한 사회 내에 동시에 존재하는 집단간 동질성과 집단내 다양성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Wulff 1988). 또 다른 문제점으로, McRobbie(1991)는 하위문화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성편향성을 지적한다. 즉 하위문화를 다루는 많은 경험적 연구들의 남자 청소년들의 집합적 행위양식 표출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향이 하위문화에 대한 편협한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3. 생애과정론의 관점

생애과정론의 관점에서 사회화를 바라보는 학자들은 개인의 삶을 생애과정 중의 중요한 사건들에 의해 구분되는 여러 단계들을 밟아나가는 것으로 이해한다. 각각의 의미 있는 사건들은 개인사의 각 단계를 구분 짓고 동시에 개개인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는 표시로 받아들여진다.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기의 사회화 과정은 입학, 졸업, 취업 등과 같은 청소년기의 주요 사건들에 의해 구분되기 때문에 생애과정론에 입각한 연구자들은 그러한 사건들의 연속과 각 사건의 시기에 관심을 갖는다. 예컨대 학교를 졸업하기 이전인 14세 무렵에 구직경험이 있었던 청소년들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8세가 지난 다음에 처음 직업을 갖는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비교하는 것이다(Elder, 1985).

생애과정 연구자들은 일반적인 시간의 연속과 개인의 생애사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세 가지 주제, 즉 개인의 인생에서 특정 사건을 경험하는 나이, 그러한 사건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시기, 그리고 그 사건을 함께 경험한 동년배 집단에 관심을 갖는다. 첫째, 나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한 Elder(1985)의 연구에서처럼 개인이 자신의 생애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을 몇 살 무렵에 경험하는가에 따라 그 사건의 의미가 달라지고 그 사건의 지속으로 인한 영향 또한 달라질 것으로 가정한다. 둘째, 개인 생애사의 중요 사건이 발생하는 역사적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비록 동일한 나이에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 사건이 어떤 맥락에서 발생하는가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예컨대, 경제 공황의 시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이 경험하는 취업과 2000년대에 고등학교 졸업생

이 경험하는 취업은 개인의 생애사에 있어서 같은 의미를 갖는 경험이라고 보기 어렵다. 셋째, 같은 세대 내의 비슷한 연령 집단 구성원들을 의미하는 동년배 집단은 역사적 맥락과 무관하게 생애과정 중의 개인의 경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를 예로 들었을 때, 취업이라고 하는 특정 개인의 경험은 취업과 관련하여 동년배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경험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청소년 사회화와 관련하여 생애과정 연구자들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동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여 왔다. 그러한 전이 과정은 흔히, 학교를 졸업하고, 부모의 집을 떠나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며, 직업을 갖게 되고, 결혼을 하며 자녀를 출산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개별 연구주제들은 생애과정 중의 특정 사건들의 연속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는데, 예컨대, Modell(1989)의 연구에서는 졸업과 구직, 결혼으로의 진행과정을 주요하게 보았으며, Sampson과 Laub(1993)는 청소년 비행으로의 진입과 이탈의 계기가 되는 생애 사건들을 중요하게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화에 대한 생애과정론적 접근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삶에 대한 종단적 접근을 그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횡단적 연구들에서 포착할 수 없었던 사회화 과정의 역동성을 잘 보여준다. 또한 오랜 시간에 걸쳐 드러나는 사회화 과정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

4. 해석적 관점

청소년 사회화에 대한 해석적 관점은 기본적으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의미가 규정되고 변형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시각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동시에 사회구조의 영향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전통적인 상호작용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적 제약과 행위자의 주체적 능력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조율관계를 강조한다(Cicourel, 1974; Corsaro, 1985). 해석적 관점은 수동적인 사회화의 대상이라고 여겨졌던 청소년을 주체적 해석 능력을 지닌 적극적 존재로 파악하고 그들 나름의

공유된 이해방식을 창조할 수 있는 능동적인 행위자들로 간주한다. 즉, 이미 존재하는 사회체계 내의 역할과 규범에 그대로 동조하거나, 학교 교육을 통한 구조적 불평등의 지속에 쉽게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회적 제약들에 도전하고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과 문화를 창조하는 존재로 청소년을 파악하는 것이다.

생애과정론의 관점과 마찬가지로, 해석적 관점에 입각한 연구자들은 개인들이 각각의 생애과정에 있어서 상이한 문화에 참여하게 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생애과정론자들이 생애사의 여러 사건들의 연속과 그 안에서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해석적 관점에서는 지속적인 의미의 생산, 재생산 과정을 중시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지식과 신념은 성인들의 그것을 반영하지만, 동시에 청소년들 나름의 고유한 해석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성인들의 문화체계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청소년 사회화 연구에 있어서, 해석적 관점에서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기존의 문화적, 언어적 규범에 반응하고 이를 수용, 변화시켜 가는지가 중요한 연구주제로 등장한다. 왜냐하면 일상적 언어 규범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지식이 실제로 어떻게 발현되고 또 변형되는지 보여주는 실례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Corsaro(1985), Corsaro와 Rizzo(1988) 등의 연구는 언어 규범의 예측가능성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들 동료 집단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어떻게 의미의 창조적 변형 가능성을 제공하는지 보여준다. Everhart(1983), Shuman(1986), Eder와 그의 동료(1995)들이 수행했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언어 사용 방식을 통해 성, 청소년 문화 등에 있어서 어떻게 기존 성인들의 의미 체계를 재생산하고, 또 거기에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더해 가는지 보여준다.

사회화에 대한 해석적 관점의 특징은, 기존의 다른 시각들에서 간과되었던 사회화 과정의 집합적, 발현적 속성을 강조한다는 데 있다. 즉 청소년들의 삶을 조건 짓는 구조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인정하지만, 청소년 집단 나름의 집합적인 문화적 실천을 통해 구조의 영향으로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결과들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 출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방식은 사회화를 단순히 재생산의 관점으로 이해했을 때 생겨나는 한계를 극복하게 해준다. 물론 사회 구조의 일방적인 영향력을 극복하려고 한다는 특징은 앞서 언급한 하위문화론적 접근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그러나 해석적 접근은 단순히 반문화 혹은 대항문화로서가 아니라 보다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실천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하위문화론과 구별된다.

Ⅲ. 미국 사회의 청소년 실태와 생활모습

1. 청소년과 노동
2. 청소년과 성
3. 청소년 폭력의 문제

Ⅲ. 미국 사회의 청소년 실태와 생활모습

1. 청소년과 노동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수입을 위한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찬반은 미국 사회의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오랜 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학업 이외의 경제활동은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경제활동이 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경제활동 경험이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학문적, 실제적 관심들이 집중되었지만, 이에 대한 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즉 모든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이 주는 혜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장기간의 취업이 경제적 보상을 보장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학업이나 기타 사회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떤 것이든지 자신의 직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미국 성인들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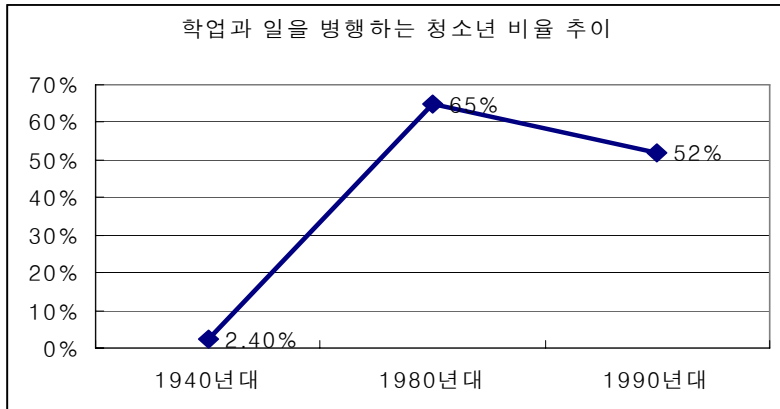
청소년 노동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잘못된 인식 중의 하나는 미국 청소년들이 학업이나 경제활동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게으른 편일 것이라는 생각이다(Duffett et al, 1999). 그러나 이와 같은 판단에 앞서 중요하게 고려될 사항이 있는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의 청소년들이 학업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비율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는 점이다. 한국의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2학년 학생들은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미국의 경우 55%가 주당 3시간 이상 일을 한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다른 산업화된 국가들(캐나다 39%, 뉴질랜드 27%, 노르웨이 27%, 네덜란드 26%)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Bracey, 1998). 흔히 미국의 청소년들을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학업 성취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판단에 앞서 높은 경제 활동 비율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 청소년 노동인구의 변화

1950년대 이전까지 미국 사회의 청소년 노동은 가족의 경제적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전후 경제적 부흥을 겪으면서, 경제적 필요에 의한 청소년 노동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청소년들의 삶의 무대 역시, 점차 일터에서부터 학교로 빠르게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 성장에 기인한 이와 같은 변화는 당시의 부모 세대들에게 대단히 생소한 것이었다. 그들에게 자신들의 자녀들이 지나치게 많은 자유 시간을 갖거나 혹은 경제활동의 기회로부터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 일종의 두려움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부터 미국 사회의 청소년들은, 전 세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존을 위한 전업 노동에 참여해야 했던 것과는 달리, 학업과 경제 활동을 겸하는 비상근(part-time) 노동이나 방과 후(after-school) 노동의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1940년 통계를 살펴보면, 청소년 인구의 2.4%만이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것으로 조사됐었다. 즉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전업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소수의 청소년들만이 경제활동의 의무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1950년 대 이후 급격히 변하기 시작해서 1980년대 중반이 이르면 그 비율이 65% 까지 증가했다. 1990년대 후반에는 그 추세가 조금 변하여,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 인구 중 약 52%가 학교와 직장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Bureau of Labor Statistics,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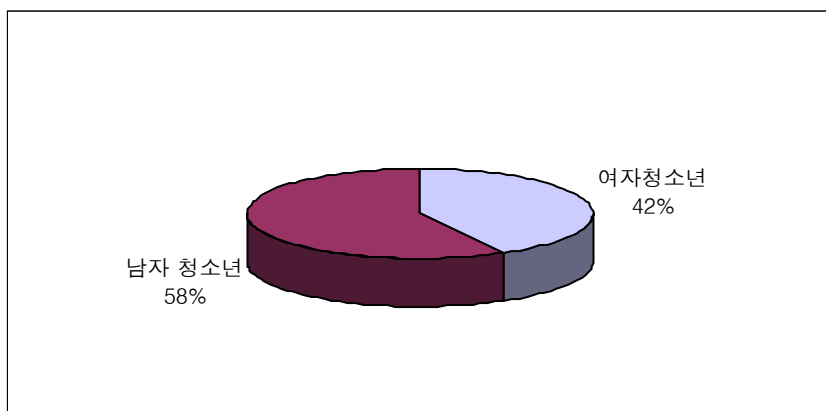
[그림 III-1] 학업과 일을 병행에 대한 청소년의 비율 추이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이 일정 시간 동안의 경제 활동을 병행하는 것은 모든 성별, 연령, 인종에 걸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 중의 하나이다. 직종에 따라 상대적인 분포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족 배경을 지닌 청소년들도 상당 부분 취업 경험을 갖는다. 연령별로는, 대체적으로, 17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그 이하 연령대에 비해 노동시간도 길고 취업 경험도 다양하다. 고등학교 재학생들만을 살펴보면, 10학년의 절반 이상, 11학년, 12학년의 거의 모든 학생들이 어떤 형태로든 고등학교 재학 중에 경제 활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2학년 학생들 중 약 80%는 주당 15~20시간 정도를 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Schneider and Stevenson, 1999).

2) 청소년 노동: 성별, 인종, 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사회적 기대의 차이는 청소년 노동에 있어서도, 직업의 종류와 보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렵고 위험하며, 육체노동에 기반하는 직업을 갖게 되기가 쉽고, 여자 청소년들은 어린 아이를 돌보는 일(baby sitting)과 같은, 소극적 일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차이는 청소년 노동의 성별 간 임금 차이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Barling과

Kelloway의 연구(1999)에 따르면, 방과 후 직업을 갖고 있는 16세 이상 19세 미만 남자 청소년들의 연간 소득은 4,624달러로, 같은 연령대의 여자 청소년들의 3,325달러에 비해 40% 정도 높았다. 본인들의 실제 소득과는 별도로, 청소년들이 흔히 갖는 직업들에 대한 적정 소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남자 청소년들이 기대하는 소득이 여자 청소년들의 기대 소득보다 높았다. 경제적 보상 정도에 대한 성별 간 기대 차이는 장기적으로 여성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저평가하고, 전체 사회 수준에서 여성 노동을 주변화 시키는 한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그림 III-2] 직업을 갖고 있는 16~19세 미만 청소년들의 연간 소득(1999)

Barling과 Kelloway의 연구(1999)에 의해서 방과 후 직업을 갖고 있는 16세 이상 19세 미만 남자 청소년들의 연간 소득을 재구성.

청소년 노동의 양상은 인종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보다 분명히 구별된다. <표 III-1>과 <표 III-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백인 청소년들이 흑인 청소년들에 비해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가지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족 배경을 갖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방과 후 직업을 갖는 기회가 더 많다. 먼저, 인종 변인과 관련된 1998년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

보면, 15세 백인 청소년의 22.2%가, 흑인 청소년의 16.4%가 취업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17세 청소년의 경우에는 백인 청소년의 82.8%가, 흑인 청소년의 69.5%가 취업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히스패닉 계열 청소년들의 경우, 흑인 청소년이 평균 비율보다는 높지만, 인종적 소수자로서의 불리함은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표 III-1> 15-17세 청소년 노동인구의 비율 분포

성별, 연령, 인종 배경	전체	연평균 가족 소득 (1998년, \$)			
		27,300\$ 이하	27,300\$~ 50,999\$	51,000\$~ 79,999\$	79,999\$ 이상
전체	23.9	15.0	22.1	29.5	29.5
남자	23.3	14.2	21.5	29.0	28.5
여자	24.6	15.9	22.6	30.0	30.5
15세	9.7	6.2	9.7	12.1	10.9
16세	24.8	16.0	21.8	32.3	29.7
17세	37.0	23.1	36.1	42.3	45.6
백인 (15-17세)	26.9	17.3	25.4	32.1	30.4
흑인 (15-17세)	11.9	9.9	8.5	16.9	21.4
히스패닉 (15-17세)	14.6	10.9	15.4	19.6	22.1

자료: Herman(2000).

미국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의 남녀, 연령 계급별 현황은 아래 <표 III-2>와 같다. 청소년 연령인 15세~19세의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43.9%로 남녀 청소년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III-2> 남녀, 연령 계급별 경제활동인구 비율 (미국, 2004)

연령	계 (%)	남(%)	여(%)
15~19	43.9	43.9	43.8
20~24	75.0	79.6	70.5
25~29	82.0	90.9	73.1
30~34	83.4	92.2	74.0
35~39	83.5	92.7	74.5
40~44	83.8	91.2	76.7
45~49	83.7	89.3	78.2
50~54	79.8	85.4	74.5
55~59	71.1	77.6	65.0
60~64	50.9	57.0	45.4
65~	14.4	19.0	11.1

자료: 국립사회보장·인주문제연구소 편집(2006). 인구동향 -일본과 세계. 인구통계자료집. 2006.

청소년 노동 시장에서의 구조적 불평등은 가족의 경제적 배경과 관련된 통계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청소년 노동 인구를 가족의 연간 소득에 따라 구분한 1999년 통계를 살펴보면,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들 중 60% 정도가 연소득 51,000달러 이상의 가정 출신이었다. 반면, 22% 정도의 청소년들은 연소득 27,000달러 이상 51,000달러 미만 가정 출신이었으며 단지 15% 만이 연소득 27,000달러 이하의 가정 출신이었다(Herman 2000). 결과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백인 청소년들이 다른 인종적 소수자 집단이나, 하위 계급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취업기회를 갖는 것으로 요약된다.

<표 III-3> 15-17세 청소년 노동인구의 실업률

성별, 연령, 인종 배경	전체	연평균 소득 (1998년, \$)			
		27,300\$ 이하	27,300\$~ 50,999\$	51,000\$~ 79,999\$	79,999\$ 이상
전체	18.7	30.6	22.8	13.9	12.0
남자	20.1	34.7	24.8	13.7	13.1
여자	17.1	26.3	20.7	14.2	10.9
15세	22.3	37.1	27.7	15.8	9.5
16세	20.8	29.9	31.0	11.1	15.1
17세	16.2	29.1	14.3	15.4	10.5
백인 (15~17세)	16.4	26.8	18.9	12.9	12.5
흑인 (15~17세)	38.5	45.0	51.9	26.3	11.1
히스패닉 (15~17세)	24.1	32.4	20.8	19.9	11.8

자료: Herman(2000)

상대적으로 타 집단에 비해 사회, 경제적 유리함을 지니고 있는 집단이 청소년 노동 시장의 진입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미국 사회의 청소년 노동이 갖는 성격이 한국 사회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학업 이외의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한국과는 달리, 방과 후 직업을 갖는 것이 청소년 시기에 일반적으로 거치게 되는 사회화 과정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미국의 부모들은 청소년기 자녀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유익한 경제활동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다. 즉 청소년기 노동이 그 자체로 고등학교 졸업 후 또는 대학 진학 이후의 본격적인 직업 세계로의 진출에 대비하는 예비 과정의 하나로 인식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동 시장 진입 과정에서의 마찬가지로 사회, 구조적인 유리함을 갖고 있는 집단이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누리는 것이다.

3) 청소년 노동과 학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사회의 대다수 10대 후반 청소년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 시간과 학업 성취 사이의 관계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주목을 받았다. 비록 모든 경험적 연구에서 일관된 결과를 얻어낸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청소년 노동과 학업 성취사이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노동시간의 연장과 학교 성적 사이에 부정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Warren et al, 2000).

그러나 국제 비교 자료에 근거한 Bracey(1998)의 연구결과는 미국 사회에서 발견되는 노동시간과 학업 성취 사이의 관계가 다른 나라의 경우와 상이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청소년 노동시간의 연장과 학업성취 사이에 단순 선형 관계를 드러내는 다른 나라의 경우들과는 달리, 미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에서는 양자 사이에 비선형적 관계가 존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진학정석검사(SAT) 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당 14시간 이내로 일 하는 학생들이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획득하였고, 24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일을 하는 학생들이 가장 낮은 점수 분포를 나타냈다. 그러나 일을 전혀 하지 않는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주당 35시간 이상 일을 하는 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학업 성적이 떨어진다는 단순한 인과관계 주장에 대한 하나의 반론이 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Mihalic과 Elliott(1997)도 노동시간과 성적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지나친 단순화를 지적한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주당 20시간 이내로 일을 하는 학생들이 경우, 노동시간의 증가가 성적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 노동과 학교생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학업 성적 이외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폭넓게 이루어졌다. 먼저 일단의 연구자들은 경제활동 참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였다. 예컨대, 청소년들이 학교 공부 이외의 직업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친사회적 성격과 의사소통의 기술을 배양할 수 있고 책임감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과 학업을 적극적으로 병행하

는 학생들일수록 성공적인 학교생활의 지표가 되는 자긍심, 학업성취 동기, 책임감 등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높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다(Mihalic and Elliott, 1997).

그러나 정반대의 입장에서 청소년 노동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들, 즉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결석이 잦아지고 태만한 학습 태도를 보이는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부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과도한 학업 외 노동이 학교 교육이 추구하는 목적으로부터 학생들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Barling and Kelloway, 1999). 이러한 주장에 대해 McNeal(1997)은 노동시간과 학업의 중도포기를 사이의 관계를 청소년들의 일하고 있는 직종과 연관해 설명한다. 20,000명 이상의 전국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학업을 중간에 그만 두는 청소년들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특히 높았다. 상대적으로 일반 도, 소매상점이나 농업 관련 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의 구직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일차적으로 이러한 직종이 타 직종의 청소년 노동에 비해 많은 경제적 보상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이유로 지적되는 것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의 노동환경이 학생들에게, 학교 공부가 실제 생활에서 돈을 버는 일과 크게 상관이 없다는 태도를 갖게 하기 때문이다(Good, T. and J. Brophy, 2003).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 노동이 학교생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영향이 단순히 노동시간의 증가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함께 보여준다.

2. 청소년과 성

한국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 사회의 청소년들 역시 성과 관련된 이중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매스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성에 대한 담론과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모와 학교교육을

통해 접하는 현실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방송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청소년의 성은 건강하고 흥미로우며, 개개인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된다. 상대적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한 개인적 생활공간에서 접하게 되는 성 규범은 여전히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긴장관계 때문에 청소년들은 성과 관련된 행위규범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갈등하며,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동료 집단 구성원들이 수용하고 있는 성 규범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1) 성 경험 실태와 변화 양상

일반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성 행동과 성 규범을 판단하는 방식은 대중매체를 통해 보고되는 10대 임신, 낙태, 성병의 비율 등을 종단적으로 비교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은 청소년들의 성 행동과 관련된 피상적 자료만을 제공할 뿐,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제공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성적 관계를 맺으며, 어떤 경우에 그러한 행동들이 개인적, 사회적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청소년의 성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10대 임신의 경우, 흔히 청소년기의 무책임한 성 행동의 결과로 받아들여지지만, 실제로 과반 수 이상의 10대 미혼모 임신이 성인 남성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를 청소년들의 성 규범과 관련된 문제로만 한정지을 수 없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청소년 성과 관련된 주제들은 매스 미디어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 거리로만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경험적 자료를 다루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성 행동을 측정하는 일관된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성에 대한 문화적 규범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단순한 예로, 대다수의 성인들은 요즘 청소년들이 과거에

비해 성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관대하고, 따라서 더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어린 나이에 성관계를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자료 조사의 수준에서 생각했을 때, 성관계를 규정하는 문화적 규범이 과거와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성관계 경험에 대한 측정이 쉽지 않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문제에서 종단적인 비교를 어렵게 만드는 한 원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몇몇 경험적 연구들은 오늘날 미국 청소년들의 성 행동과 태도를 이해하는데 있어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Annie E. Casey Foundation, 1998; Gates and Sonenstein, 2000; Terry and Manlove, 2000). 먼저, 1990년대 이후 지난 10년간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이성과의 직접적인 성관계를 갖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10대 청소년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1990년 자료에서 10대 남자 청소년의 61%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지만, 1997년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49%로 감소한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두 시기 모두 48%로 동일한 응답률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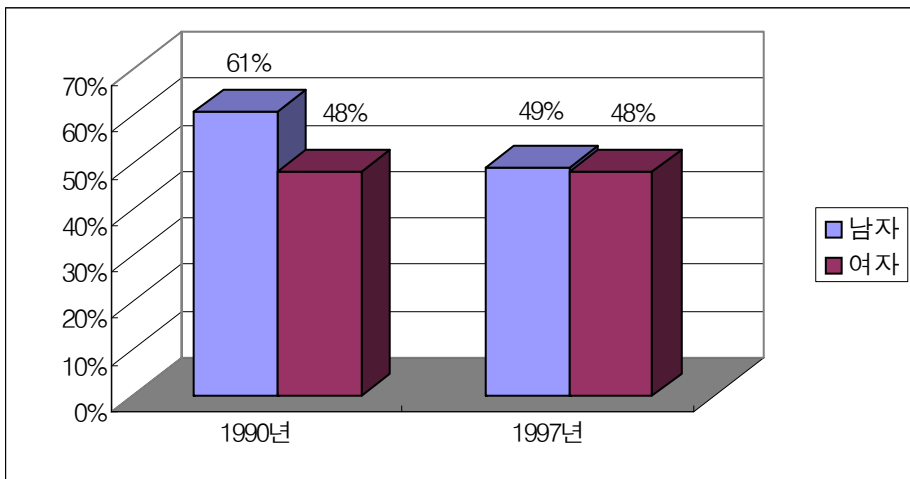
그러나, 이와 같은 감소 추세는 <표 III-4>에 요약된 바와 같이 연령과, 인종/민족 집단별 구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표 III-4> 10대 청소년의 성경험 비율(%)

비교	구분	1990년	1997년
성별 비교	남자	61.0	49.0
	여자	48.0	48.0
인종/민족 집단별 비교	백인	52.0	44.0
	흑인	72.0	73.0
	히스패닉	53.0	52.0
연령별 비교	9학년	40.0	38.0
	12학년	72.0	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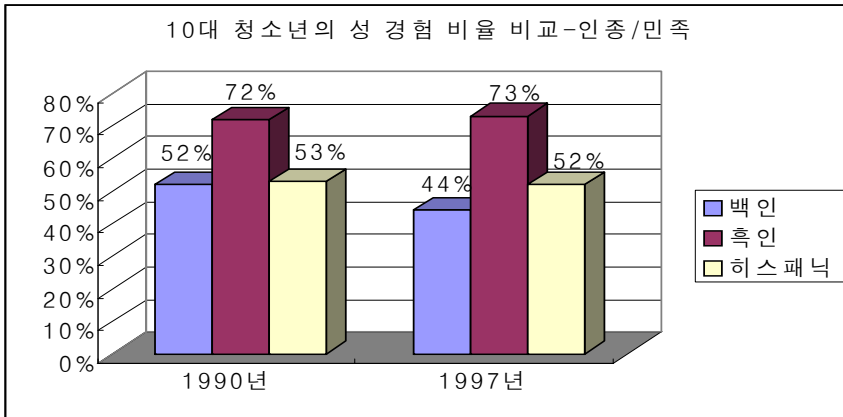
자료: Annie E. Casey Foundation(1998)

흑인 10대 청소년의 경우 성경험을 보고한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으며 1990년과 1997년 사이에 큰 변화가 없다. 히스패닉 계열 청소년들도 각각 1990년에 53%, 1997년에 52%가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감소추세를 보이지 않는다. 이와 달리 백인 청소년의 경우, 1990년에는 히스패닉 계열 청소년들의 응답률과 비슷한 52%가 성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지만, 1997년에는 44% 만이 성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성경험의 변화 추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10대 후반 청소년들이 성경험 감소 비율이 두드러진다. 9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990년 조사에서는 40%가 성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는데 1997년 조사에서는 38%로 나타나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12학년 학생들의 경우, 1990년에는 72%가 성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것에 반해 1997년에는 61% 만이 같은 대답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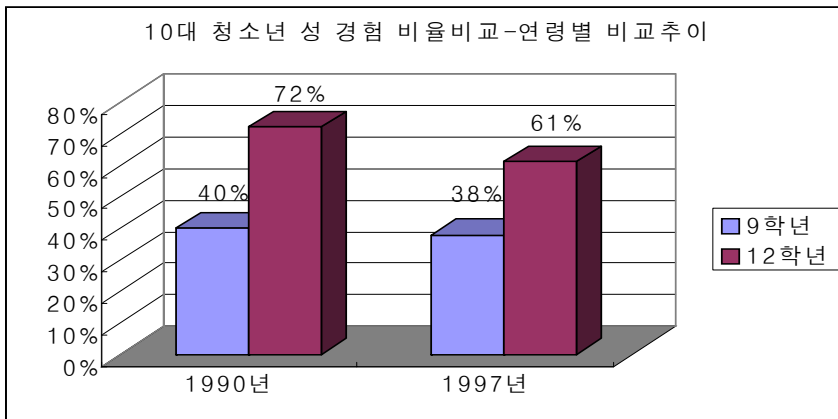
[그림 III-3] 10대 청소년의 성 경험 비율 추이 - 남녀비교

자료: Annie E. Casey Foundation(1998)에서 재구성



[그림 III-4] 10대 청소년의 성 경험 비율 추이 - 남녀비교

자료: Annie E. Casey Foundation(1998)에서 재구성



[그림 III-5] 10대 청소년의 성 경험 비율 추이 - 남녀비교

자료: Annie E. Casey Foundation(1998)에서 재구성

2) 임신, 낙태 및 성교육의 문제

미국 사회에서 청소년의 성 행동을 언급함에 있어, 성행위 경험 이외에 흔히 언급되는 것으로 임신과 낙태, 성병 감염 여부 등이 있다. 이러한 주제들은 청소년의 성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목을 받는다. 최근 들어 미국 사회의 10대 임신과 낙태, 성병 감염이 감소한다는 사실은 청소년

년 성 행동과 관련하여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단순 비율로 표현되는 결과들은 성 행동의 맥락과 관계의 질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먼저 청소년 미혼모 문제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저소득층 흑인 여성과 같은 특정 인구집단에 청소년 미혼모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로 인한 학업의 중도 포기, 노동 시장에서의 배제 등이 자녀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쳐 빈곤의 악순환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등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10대 미혼모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난 아기들에 비해 빈곤계층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10배나 높다. 또한 미혼모 가정의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이르렀을 때, 그들 역시 고등학교를 중도 포기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2배나 높다(Sawhill, I. V, 1998). 그러나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의 주목할 만한 현상 중의 하나는, 미국 사회에서는 90년대 이후 10대 임신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화된 나라들 중 가장 높은 10대 임신 비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최근의 감소 추세가 계층이나 인종 집단에 따른 차이 없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10대 임신 비율의 감소와 아울러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 변화는 낙태 비율의 감소다. 이는 청소년 임신과 출산의 감소가 낙태의 증가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반의 우려와도 상반된다. 구체적으로 15세부터 19세 사이 청소년의 낙태비율은 1990년에 1,000명당 41명에서 1995년에 1,000명당 30명으로 감소하였다(Annie E. Casey Foundation, 1998). 또한 1994년과 2000년을 비교했을 때, 약 39%의 낙태 감소가 보고되기도 하였다(Johnes et al, 2002).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청소년 인구에서의 낙태 비율 감소는, 20대 여성의 낙태 비율이 어는 연령대보다도 높다는 사실과 대조되면서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된다.

1990년대 초반을 전후하여 청소년 인구의 성병 감염 비율도 감소하기 시작했다. 가장 일반적인 성병 중의 하나인 클라미디아(*Chlamydia*)의 경우, 성

관계 경험이 있는 17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0년대 초반, 13%의 감염률을 기록했던 것에 반해 90년대 말 조사에서는 그 수치가 절반 이하인 6%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성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 빈곤층 소수 인종 여성의 성병 감염률이 특히 높다는 점 등은 청소년 성교육에 있어서 성병과 관련된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3. 청소년 폭력의 문제

청소년 범죄와 폭력의 심각성은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공통된 우려와 관심을 표명하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자녀나 형제, 이웃이 청소년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폭력과 관련된 문제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관심은 자신과 가까운 청소년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 가해자의 위치에 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청소년 폭력 문제에 대한 언론의 과장과 오해에 일정 부분 근거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더욱이 그런 오해가 사람들의 걱정을 더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더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유죄판결을 받고 감옥에 보내지며 범법자로 낙인찍히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Strom, 2000). 이러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청소년 폭력의 문제를 다루는 매스 미디어의 선정적 태도에 문제를 제기한다. 텔레비전 뉴스나 보도 프로그램에서 다뤄지는 청소년 폭력은 불균형적이고 왜곡되기 쉬운데 이는 특히 청소년 폭력 이외의 범죄를 다룰 때와 분명히 비교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1990년대 전체 기간 동안, 청소년 폭력 범죄는 유의미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매스 미디어에서 다뤄진 빈도와 시간은 오히려 증가하였다(Males 2000). 반대로, 같은 기간 동안 화이트칼라 범죄는 꾸준히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대하는 언론의 태도는 청소년 범

죄를 다룰 때와 대조적이었다. 결과적으로 매스 미디어의 이러한 보도 양태는 청소년을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존재로 인식시키며 청소년 폭력의 위험성을 실재 이상으로 과장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한다(Dorfman et al 1997).

1) 청소년 폭력범죄 실태

청소년 폭력 문제를 둘러싼 이와 같은 상반된 인식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청소년 폭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어려우며, 어떤 자료에 의존하였느냐에 따라 현실에 대한 진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폭력에 대한 자료는 두 가지 서로 다를 출처로부터 나오는데, 첫째는 미국 연방 수사국의 범죄자 체포 비율에 근거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일반 설문지를 이용하여 응답자의 범죄 관련 경험을 묻는 자기 보고식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다. 양자는 상호 보완적인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다(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0). 즉 공식적인 범죄자 체포율에 근거한 자료는 폭력범죄의 상대적인 증감을 보여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청소년 폭력범죄의 비율을 과소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응답자의 자기 보고에 근거한 자료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결과가 과장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있다.

범인 체포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90년대 이후 지난 10여 년간 청소년 범죄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폭력범죄의 감소가 특히 두드러졌다. 1993년부터 1997년 사이, 성인 폭력범죄의 비율이 25% 감소한 것에 비해, 청소년 폭력범죄는 33%가 감소하였다. 1995년과 1999년이 청소년 범죄 통계를 비교하면, 살인은 56%, 강도는 39%, 절도는 23%가 각각 감소하였다(Snyder and Sickmund, 1999; Butts, 2000). 그러나 앞서 언급한 강력 범죄들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경범죄에 속하는 청소년 범죄들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Butts, 2000).

범인 체포율에 기초한 청소년 범죄 통계에서와는 달리, 설문지 응답자의 자기보고에 근거한 자료에서는 청소년 폭력 범죄의 감소가 발견되지 않는다.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한 연구들은 공통

적으로 청소년 범죄의 상당 부분이 공식 통계 상에서 파악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로 설문지 응답결과를 기초로 1990년대 후반의 청소년 폭력범죄 건수를 추산해 보면, 공식 통계에 집계된 것보다 약 10배가량 그 수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0). 범죄 집계 방식의 차이에 따른 이와 같은 차이는 청소년 폭력에 대한 현실 인식을 다르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청소년 비행 관련 연구자들 사이에서 여전한 논란의 대상이 된다.

2) 청소년과 폭력범죄: 인종, 민족 집단별 차이

청소년 범죄 및 처벌과 관련된 자료들에서는 공통적으로 빈곤계층 소수 인종 청소년들의 높은 범죄율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인구 분포를 감안했을 때, 교정기관에 수감 중인 흑인과 히스패닉 계열 청소년들의 비율은 백인 청소년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Words et al, 1994; Strom, 2000). 인종과 관련된 청소년 범죄 연구에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수 인종 청소년들이 백인 청소년에 비해 더 가혹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2배에서 3배 가량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한다(Justice Policy Institute, 2000). 구체적 자료를 살펴보면, 1996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중범죄 이상의 죄로 체포된 전체 청소년 중에서 백인이 12%, 흑인이 25%, 히스패닉 계열이 56%, 아시안 계열이 6%를 차지했다. 이러한 분포는 전체 인구 분포를 고려했을 때, 백인은 과소, 흑인과 히스패닉 계열 청소년은 과대 표출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청소년 법정(juvenile court)에서 성인 법정(adult court)으로 이월된 비율을 비교했을 때, 더욱 분명해진다. 위와 동일한 자료에서 같은 시기에 성인 법정에서 다뤄진 청소년 범죄의 비율을 살펴보면, 백인 5%, 아시안 계열 6%, 흑인 30%, 히스패닉 계열이 59%를 차지했다(Justice Policy Institute, 2000).

소수 인종 집단 청소년의 과대표출 현상이 사법 체계에 반영된 인종 편견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만큼 더 많은 범죄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모든 연구에서 경험적 뒷받침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 폭력과 인종 문제를 다루는 일단의 연구자들은 객관적 범죄 사실과

무관한 인종적 편견이 더 많은 소수 인종 청소년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Pope and Snyder, 2003). 특히 동일한 범죄 사실에도 불구하고 소수 인종 청소년들이 백인 청소년에 비해 공식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더 많은 비율의 소수 인종 청소년들이 성인 법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비록, 소수 인종 청소년이 실제로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현상은 또 다른 맥락에서 인종 차이로 인한 불리함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불리함과 결부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소수 인종 청소년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성인범죄의 연루 가능성도 함께 증가한다. 즉각적인 범죄의 유혹이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구조적 조건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도 언젠가 범법 행위에 개입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아울러 불리한 환경 조건은 사법 당국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로 인해 동일한 행위가 범법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도 함께 증가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소수 인종 청소년들은 열악한 환경조건에 기인한, 잠재적 범죄자로서의 자기 예언 효과, 그리고 그와 같은 잠재적 범죄자로서 대우하는 사회의 감시와 관심으로 인해 더 쉽게 실제 범죄자로 규정되는 것이다.

3) 청소년과 학교폭력

학교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다수의 일반적인 미국 성인들은 동의를 표시한다. 1985년 통계를 살펴보면,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의 싸움과 폭력이 심각한 문제라는 우려를 표시한 사람들은 전체의 1%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1992년에는 9%, 1993년에는 13%, 1994년에는 18%로 늘어났다(Elam et al, 1994). 1999년 자료에서는 전체 성인 응답자의 1/3 정도가, 청소년들이 대단히 폭력적이며 학교는 그런 청소년들을 통제할 여력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Rose and Gallup, 2000). 학생들 역시 자신들의 학교 환경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성인들의 인식 변화 수준보다는 미약하지만, 1990년

대를 거치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예컨대, 1989년에 12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가 학교 폭력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에 비해 1999년 동일한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9%로 증가하였다(Kaufman et al, 2000).

그러나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일반의 우려와는 달리, 청소년 폭력에 관심을 갖는 일단의 연구자들은 정치적 수사와 언론의 선정적 보도에 의한 과장의 가능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Kaufman et al, 2000). 즉, 오늘날 미국 사회의 많은 학교들이 학교 폭력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 실상이 몇몇 상징적인 학교 내 총격사건과 같은 일련의 범죄들 이후 언론에 의해 부풀려진 것만큼 급격히 악화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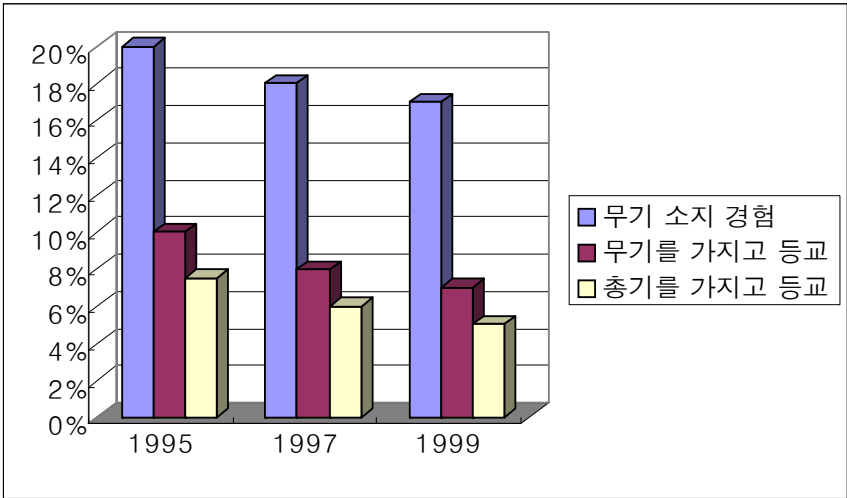
물론 이러한 주장은 학교 폭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측정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 한계에 부분적으로 기인하지만, 실제로 학교 폭력과 관련된 자료들을 살펴보았을 때, 학교가 점점 위험한 곳이 되어간다는 인식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충분치 않다. 오히려 공식통계에 의해 포착된 학교와 학교 인근 지역에서 일어난 강력 사건의 빈도는 199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모든 연령대, 성별, 지역 구분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설문조사 자료들에서도 무기를 소지한 청소년으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실제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의 비율은 1993년 이후 큰 증감을 보이지 않는다. <표 III-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기를 포함한 무기를 가지고 다니거나, 이를 소지한 채 학교에 나가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비율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표 III-5> 무기(총기 포함) 소지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의 비율

년도	무기 소지 경험	무기를 가지고 등교	총기를 가지고 등교
1991	26.0%	-	-
1993	22.0%	12.0%	8.0%
1995	20.0%	10.0%	7.5%
1997	18.0%	8.0%	6.0%
1999	17.0%	7.0%	5.05

자료: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2000)

이러한 결과들은 학교 폭력의 위험성 증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과장된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림 III-6] 무기 소지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의 비율

IV. 청소년의 가족 내 사회화

1. 자녀 사회화에 있어서의 부모의 영향
2. 청소년의 가족 내 사회화 연구경향 :
가족구조의 중요성
3. 청소년 사회화와 가족구조 변화의 영향
4. 가족구조 영향의 실제
5. 가족 내 사회화에 대한 최근 연구경향
6. 가족내 사회화를 둘러싼 논쟁: 가족은 여전히 중요한가?

IV. 청소년의 가족 내 사회화

1. 자녀 사회화에 있어서의 부모의 영향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일차적인 이유는 기성세대의 태도나 가치, 행동 방식들이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교육을 통해 전달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 상식에 근거한 이러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떠한 구체적 방식을 통해 부모의 영향력이 발휘되는지는 쉽게 규명되지 않는다. 더구나 어떤 목적을 위한 부모의 의도적 영향력 행사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녀 세대의 특정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존재한다.

부모의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하게 시도되었는데, 크게 네 가지 쟁점들이 주요 관심이 대상이 되었다(Smith, 1983).

첫째, 부모의 양육 방식이나 교육 방법이 자녀의 특정 성격이나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가 일차적인 쟁점이다. 이와 관련해 Rollins와 Thomas(1979)는 논리적 설득에 기반한 부모의 교육 방식이 자녀들의 인지 능력 향상과 자긍심 증가와 같은 긍정적 결과를 낳고 반대로 체벌 중심의 양육 방식은 공격적 성향 증가와 같은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부모의 양육 방식을 긍정·부정적 형태로 구분하고, 자녀 세대의 결과 지표를 그 결과로 간주하는 연구들은 사회화 연구의 초기부터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그 결과들은 부모의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신념, 즉 자녀를 대하는 태도나 방식에 따라 자녀 세대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상호관계에 있어서 명확한 인과관계 설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 부모의 양육 방식을 의도된 행위로 받아들이나 하더라도 그로부터 파생된 영향은 간접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둘째, 청소년기 자녀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부모로부터 얼마나 영향을 받

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 대체적으로 청소년기 자녀들은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고 믿고 있으며, 특히 진로 문제와 같은 중요한 의사 결정의 순간에 부모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믿고 있었다. 예컨대 Sebal(1968)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의복이나 유행, 여가활동 등의 문제에 있어서 친구 집단의 의견을 중시하지만, 경제활동, 학업, 직업 선택과 같은 장기적인 인생 계획에 대해서는 부모의 견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는 보여주었다. 부모의 영향에 대한 믿음은 사회화에 대한 초창기 연구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Hitlin, 2006).

그러나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역할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직접적인 부모의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부모의 영향을 평가하는 자녀들의 응답과 부모 입장에서의 응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자녀들의 응답이 부모의 태도나 양육방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부모의 영향과 관련된 또 하나의 연구주제는 청소년기 자녀들의 태도와 자녀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모의 태도가 얼마나 일치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특히 이에 대한 연구들은 Swell과 그의 동료들(1968, 1969)에 의해 수행된 학업 성취 목표에 대한 고전적 연구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다. 기본적으로 Swell 등의 연구는 청소년들이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학업 성취 정도가, 부모가 자신들에게 기대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학업 성취 정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원한다고 응답한 청소년들 중 많은 수가 자신들의 부모 역시 마찬가지로 기대 수준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뜻이다. 부모의 기대와 자신의 기대가 일치한다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연구는 부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많은 경우, 부모의 기대에 대한 응답이 자녀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상관관계가 부모들의 기대에 대한 자녀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높은 상관관계가 부모가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기보다는, 부모의 기대에

대한 동조를 표현하고자하는 자녀들의 단순한 동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도 존재했다. 최근 들어 조사규모의 확대와 조사기법의 정교화로 인해 첫 번째 비판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의 기대에 대한 동조 표현이 부모의 의도적 영향이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된다.

넷째, 위의 세 번째 연구주제와 관련된 것으로, 자녀의 태도와 부모의 실제 태도가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자녀가 인지하는 부모의 태도가 아니라 부모들 자신의 태도가 자녀들의 그것과 얼마나 유사한지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앞선 경우와는 달리, 부모와 자녀의 태도 일치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양자 사이이 상관관계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정치적, 종교적 태도에 대한 부모와 자녀 사이의 태도를 비교한 Acock와 Bengtson의 연구(1980)에서는 자녀의 태도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 변수는 부모의 실제 태도가 아니라 부모의 태도에 대한 자녀들의 예측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세 번째 연구주제에서 밝혀진 바와 일치한다.

한편 부모의 태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Jennings와 Niemi(1974)는 부모의 실제 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태도의 어떤 측면이 측정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즉 태도를 어떤 대상을 가정한 실질적 태도와 추상적 개념에 대한 태도로 나뉘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보다 전자의 경우에서 부모의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정당 선호와 같은 구체적 태도에 있어서는 자녀의 태도가 부모의 실제 태도로부터 큰 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과연 부모, 자녀 사이 태도의 유사함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직접적인 영향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예컨대, 특정 사안에 대해 부모와 자녀의 태도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부모의 영향력이 작용한 결과가 아니나, 오히려 자녀의 의견으로부터 부모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Troll and Bengtson, 1979). 이러한 주장은 부모, 자녀 사이의 일방적 영향 관계만을 가정하던 사회화에 대한 전통적 시각과 일견 대치되

기도 한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결과적으로 태도 형성에 있어서 쌍방향 영향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은 이후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지속적인 뒷받침을 받았다(Glass et al,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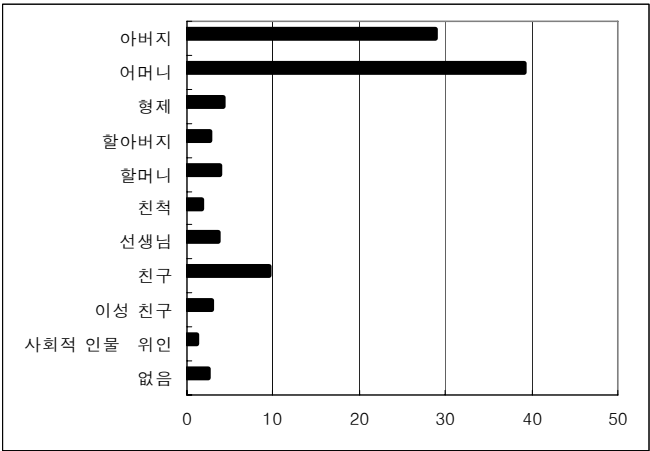
또 다른 맥락에서 Bengtson(1989)은 태도의 유사함 속에,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가 뒤섞여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예컨대, 동시대에 경제공황을 경험한 부모와 자녀들은 경제 관련 쟁점들에 대해 비슷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을 자녀의 태도에 대한 부모의 영향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의 가족내 사회화 5개국 비교 조사결과에 나타난 미국 청소년들의 조사결과에서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 사람’에 대한 문항을 분석해 보면, <표 IV-1>과 같이 미국 청소년들은 어머니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IV-1>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	선생님	친구	이성 친구	사회적 인물 위인	없음	계
빈도	1,060	1436	154	94	142	67	136	353	102	41	88	3673
%	28.9	39.1	4.2	2.6	3.9	1.8	3.7	9.6	2.8	1.1	2.4	100.0

자료: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2006).



[그림 IV-1]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

한국청소년개발원의 동일한 조사에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대는 무엇인가’라는 문항에 대해서 미국 청소년들의 응답 내용은 <표 IV-2>와 같다.

<표 IV-2> 미국 청소년들이 느끼는 부모님의 기대 비율(복수응답)

	아버지의 기대		어머니의 기대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학업성취	814	22.2	674	18.0
장래직업	524	14.3	328	8.8
사회적 성공	49	1.3	46	1.2
좋은 대학	36	1.0	23	.6
자립심	538	14.7	445	11.9
인간적 성숙	222	6.1	208	5.6
건강	652	17.8	846	22.6
행복	774	21.1	1073	28.7
결혼	58	1.6	95	2.5
전체	3667	100.0	3778	100.0

자료: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2006).

미국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미국 부모들은 다른 조사대상국과 비교해 볼 때 자녀의 행복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조사는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자녀에 대한 기대를 답변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스스로 느끼는 부모님의 기대라는 점이라는 것을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의 기대와 실제 부모의 기대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향후 추가되어 실제 부모의 기대와 청소년이 느끼는 부모의 기대의 차이를 분석하는 작업도 무척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여겨진다.

2. 청소년의 가족 내 사회화 연구경향: 가족구조의 중요성

청소년의 가족 내 사회화 과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양육방식의 차이가 자녀의 학업성취나 심리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춰왔다. 예컨대, 민주적인 가정환경 속의 청소년들일수록, 권위주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란 청소년들의 경우보다 부모의 기대를 더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던지(Elder, 1985), 아버지와 어머니의 서로 다른 양육 방식이 청소년기 아들이나 딸과의 정서적 애착 정도를 달라지게 한다(Youniss and Smollar, 1985)는 설명이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가족 내 사회화에 있어서 중요 변수인 부모-자녀 관계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연구들이 미국의 백인 중산층 가정의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80년대 이후의 연구자들은 미국 사회의 본질적 특징인 인종과 민족 배경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적 배경변인과 가족 내 사회화 과정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기도 하였다(e.g. Sui-Chu and Willms, 1996; Phelan et. al., 1993).

그러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수 인종/민족 청소년 집단에 대한 사회화 연구는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기존의 소수 인종/민족 집단에 대한 사회화 연구가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와 같은 부정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 흑인 이외의 다른 소수 인종/민족 집단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Steinberg and Morris, 2001).

문화적 배경의 다양성 고려와 아울러, 최근 미국의 청소년 사회화에 관련된 중요한 쟁점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영향이다. 부모의 이혼 및 재혼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변동, 계부/모와 청소년기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 새로운 가족 구성원 사이의 의사소통 문제 등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국 사회의 가족구조와 그에 따른 청소년의 가족 내 사회화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미국 사회의 문제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의 한국 사회의 가족 구조 변

동과 그에 따른 청소년 사회화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가족 내 사회화에 있어서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첫째 오늘날 많은 수의 미국 청소년들이 양친-친부모 가정 이외의 가족구조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달라지는 부모-자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는 실질적 필요 때문이다. 둘째 가족구조의 변화가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규범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즉 청소년 사회화를 가족 관계의 결과물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했을 때, 이를 둘러싼 구조와 규범의 변화에 관심을 쏟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에서,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불리함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필요 때문이다.

가족구조의 변동은 지금까지 소홀히 다뤄졌던, 청소년기 자녀들 간의 상호관계, 부모 이외의 다른 가족이나 친척들이 청소년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Smetana et. al., 2006).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존의 청소년 사회화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사이의 관계에만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과 재혼으로 인한 가족 구조의 변화는 과거에 정서적으로 밀착되어 있었던 친척들의 영향이나 형제, 자매들 사이의 관계를 청소년 사회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시키고 있다(Rueter and Conger, 1995; Clingempeel et. al., 1992).

그러나 가족구조의 영향을 연구함에 있어서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 사회에 존재하는 인종/민족 집단의 다양성이다. 이혼과 재혼의 증가가 미국 사회 전체의 일반적 특징으로 여겨지긴 하지만, 특정 인종/민족 집단에 따라 가족구조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예컨대, 비혼-한부모 가족의 형태는 흑인 인구 집단에 집중되어 있으며 거기에 존재하는 가족 규범은 다른 인종/민족 집단의 경우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족구조의 영향에 대한 무리한 일반화를 시도하기보다는 문화적 배경의 다양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청소년 사회화와 가족구조 변화의 영향

1) 청소년기의 일탈행동, 약물복용 및 가족구조의 영향

가족구조와 청소년 사회화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전통적으로 청소년기의 비행이나 일탈행동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Austin 1978 Rosen, 1985 Johnson, 1986; Wells and Rankin, 1986; Hagan and Sussman, 1988, Wells and Rankin, 1991). 특히 약물복용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들이 많았는데, 이는 약물복용이 청소년기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일탈행위로의 진입을 알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왔기 때문이다(Burnside et al, 1986; Flewelling and Bauman, 1990, Adlaf and Ivis, 1996; Suh et al, 1996; Amey and Albrecht, 1998; Gil et al, 1998).

위의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가족구조의 차이, 특히 양친-친부모 가정과 그 이외의 가족구조 형태 여부가 청소년들의 일탈행동과 약물복용 여부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지적되었다. 예컨대, 메타분석을 통해 1990년대 이전까지의 연구결과를 계량적으로 종합한 Wells와 Rankin(1991)의 연구에서는 첫째, 청소년 비행과 관련하여 가족구조의 영향력은 일관된 증가나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았으며 비교적 일정한 크기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왔다. 둘째, 양친-친부모 가정과 비교했을 때, 기타의 가족구조가 청소년 비행 증가의 10~15% 정도를 설명한다. 셋째,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가족구조의 차이가 초래하는 영향은 중비행보다는 경비행의 경우에서 두드러진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 약물 복용 문제와 관련해서, Adlaf와 Ivis(1996), Amey와 Albrecht(1998) 등의 연구에서는 편부/모 가정이나 재혼 가정의 청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양친-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이 약물 복용에 노출된 위험성이 적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일탈행동이나 약물복용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청소년 사회화에 있어서 가족구조의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 관계의 변화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양친-친부모 가족 이외의 형태를 "정상적인" 가족 구조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간주하고, 그러한 "비정상적" 가

족구조를 사회화 과정의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는 직접적 원인으로 제시함으로써 가족구조와 청소년 사회화 사이의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다양한 가족 관계 변수들을 함께 고려했을 때, 가족 구조의 차이로부터 기인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영향력이 사라지거나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다(Van Voorhis et al., 1988).

가족구조와 일탈행동, 약물중독 사이의 단순한 인과관계 설정을 지양하려는 시도들은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관계 특성 및 가족구조의 형태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배경 변인들을 함께 고려함으로 가족구조와 청소년 사회화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정교화 하려고 하였다 (Hoffmann, 1993, 2002; Hoffmann and Johnson, 1998). 예컨대, Hoffmann(1993)의 연구에서는 약물복용에 대한 가족구조의 직접효과만을 강조했던 기존의 연구들을 비판하고 가족관계 및 동년배 집단을 통한 가족구조의 간접효과를 중요하게 언급하였다. 아울러 가족구조의 차이가 약물복용의 차이를 가져오는 다양하고 복잡한 경로를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연구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최근 이루어진 Barrett와 Turner(2006)의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 관계, 동년배 집단의 변화에 따른 영향,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정도 등 기존의 연구들에서 가족구조의 차이와 약물복용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해 언급되었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러한 변인들의 집합적 효과를 보여주었다. 덧붙여, 청소년 약물복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가족구조 자체를 하나의 독자적인 원인 변수로 간주하기보다는,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요인들의 불균등한 분포를 축약적으로 나타내는 지표(marker)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2) 부모-자녀 관계, 정신 건강 및 가족구조 변화의 영향

가족구조의 형태 변화와 청소년 사회화 사이의 관계에 대한 초기 연구들이 비행과 일탈행동의 설명에 집중된 것은 가족구조의 변화 자체를 일종의

“비정상적” 상황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즉, 양친-친부모 가정 이외의 가족 구조를 가족 해체나 결손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청소년 사회화의 부정적 결과에 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혼 및 재혼 가정의 증가, 비혼-동거 가족의 꾸준한 증가는 상당수의 미국 청소년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가족 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게 만들었고, 그에 따라서 사회화와 관련된 연구 역시 가족구조 변화의 다양한 영향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부모-자녀 사이의 관계 변화와 청소년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정신건강, 복지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Falci, 2006), 미국 청소년의 약 50% 정도가 양친-친부모 가정 이외의 가족형태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30% 정도가 청소년 시기에 어떤 형태로든 가족구조의 변화를 경험한다. 이를 반영하듯 부모-자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 역시 기존의 양친-친부모 가족 및 그 이외 형태라는 단순한 구분을 넘어서는 다양한 형태들로 확대되고 있다.

먼저, 양친-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재혼 이전의 편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이 부모의 감독과 정서적 유대, 상호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확인된다(Hetherington, 1989; Acocck and Demo, 1994; Simons and Johnson, 1996). 하지만, 이혼 가정에서의 어머니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가 보다 친밀해지고 대화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는데 (Acocck and Demo, 1994; McLanahan and Sandefur, 1994), 이는 이혼 후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들 사이의 감정적 지원이나 조연의 상호교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아들보다는 딸과의 관계에서 두드러졌다(Arditti, 1999).

한편, 미국에서는 핵가족화, 기혼여성의 노동력 참가, 사회인식의 변화로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참여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자녀의 성별이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와 자녀 사이 나누는 대화(상담)의 내용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용된 항목은 ‘사춘기 신체 변화가 있을 때, 아버지와 상담한다’, ‘아버지와 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아버지는 집안의 모든 일을 나에게 알리고

상의한다', '성적문제에 대해 상의한다', '교우관계에 대해 상의한다', '이성관계에 대해 상의한다', '선생님과 관계에 대해 상의한다'이다.

미국 표본에서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두 항목은 '사춘기 신체변화가 있을 때 아버지와 상담한다'와 '아버지와 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이다. 이들 항목을 보면, 아들이 딸들보다 아버지와 이 문제에 대해 빈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3> 자녀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자녀사이에서 나누는 내용의 변화

문항	성별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춘기 신체변화가 있을 때 아버지와 상담한다.	남	2.10	1.046	59.308	.000
	여	1.53	.877		
아버지와 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 있다	남	1.99	1.045	80.690	.000
	여	1.46	.821		
아버지는 집안의 모든일을 나에게 알리고 상의 한다	남	2.70	.026	1.678	.195
	여	2.63	1.036		
성적문제에 대해서 아버지와 상의 한다	남	2.89	1.039	.069	.793
	여	2.94	1.053		
교우관계 문제가 생겼을때 아버지와 상의 한다	남	2.51	1.024	1.096	.295
	여	2.48	1.046		
이성관계로 문제가 생겼을때 아버지와 상의 한다	남	2.26	1.011	2.125	.145
	여	2.23	1.045		
선생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때 아버지와 상의 한다	남	2.60	1.076	3.012	.083
	여	2.63	1.119		

자료 :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2006).

재혼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친부모 혹은 계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양친-친부모가정 청소년들보다 부족하였고, 그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비혼-동거 가족의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에서 양친-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부모의 혼인 여부와는 무관하게, 부모라는 존재의 손실이나 교체를 경험하는 것이 부모-자녀 사이의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

한다(Acock and Demo, 1994). 마찬가지로 Falci(2006)의 연구에서도 비혼-동거 가족의 부모 자녀 관계가 편/부모 가정이나 재혼 가정의 경우보다 긍정적이며 양친-친부모 가정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조의 영향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서도 상이했는데, 어머니와 딸 사이의 관계에 대한 평가는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지만,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관계는 가족구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alci 2006)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양친-친부모 가정 이외의 가족구조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나 심리적 위축과 연관된다는 사실은 기존의 경험적 연구에서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Amato and Keith, 1991 ; Furstenberg and Teitler, 1994 ; McLanahan and Sandefur, 1994 ; Conger and Chao, 1996 ; Videon, 2002) 그러나 양친-친부모 가정 이외의 이혼 가정, 재혼 가정, 비혼-동거 가정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가족 구조의 형태와 그로 인한 영향력의 차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예외적으로 DeLeire와 Kalil(200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업성취, 흡연과 음주 행태 등에 있어서 편/부모 가정 내의 가족구조에 따라 그 결과에 달라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전체적으로 편/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양친-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보다 학업 성적이 부진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일탈행동의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편부/모 가정의 형태 중, 친모-할아버지(또는 할머니)로 이루어진 가족 구조하의 청소년들의 경우는 여러 사회화 결과 지표들에 있어서 양친-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긍정적인 경우도 있었다.

3) 가족구조의 영향과 기타 배경 요인들

앞서 살펴본 약물중독과 관련해서도 가족 구조의 다양성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Hoffmann(2002)은 편부/모 가정과 재혼 가정의 청소년들의 약물 사용 경험이 양친-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에 비해 높다는 일반적인 결과와 함께, 특히 이혼 후 재혼하지 않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가정의 청소년들이 만성적인 약물중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와 유사한 맥락에서, 편부 가정이나, 친부-계모 가정과 같이, 친부모의 이혼 후 아버지가 일차적인 양육 권한을 갖게 되는 가족구조 아래의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편모, 혹은 계부-친모 가정의 경우보다 약물 중독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도 있었다(Hoffmann and Johnson, 1998).

위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이혼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권을 어머니가 갖게 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청소년기 자녀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이 항상 경험적 뒷받침을 받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인종/민족 배경 변수를 함께 고려했을 때, 연구 결과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예컨대, 성과 인종에 따른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에 초점을 맞춘 Zullig 등(2005)의 연구에 따르면, 편모가정의 흑인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타 집단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았고, 편부 가정의 흑인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생활만족도가 낮았다. 그러나 백인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편모 가정환경에서 오히려 더 낮은 생활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이혼 이후, 어머니가 일차적인 자녀 양육권을 갖는 경우 기대되었던 긍정적 효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청소년 사회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가족구조와 그에 따른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양친-친부모 가정 이외의 가족구조를 일종의 일탈적 상황으로 간주하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높은 이혼율과 그에 따른 미국 사회의 변화 모습을 충실히 반영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여러 학문 분과에서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결론들이 체계적으로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일차적으로 청소년 사회화에 대한 가족구조의 영향을 연구함에 있어서 가족 형태의 다양성 이외에 인구학적, 문화적 배경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특히, 미국 사회 청소년들의 인종/민족 배경의 다양성과 아울러, 부모의 이혼 및 재혼 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족 구조들 사이에서 다수의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석과정 자체가 대단히 복잡해진다. 이러한 문제점은 단순히 통계적 분석과

정 내의 어려움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결과의 해석 및 이론적 설명 과정에서 어려움을 뜻한다. 실제로 인종/민족 변수와 가족구조의 형태 각각이 청소년 사회화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고, 동시에 여러 가족구조의 분포가 미국 사회내의 인종/민족 배경 변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계량적 분석 과정에서 어떤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설명이 쉽지 않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존 연구자들은 연구의 관심이 되는 특정 가족구조와 인구 집단 몇몇을 설정한 뒤, 그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청소년 사회화와 가족구조의 관련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배경 변인들이 충분히 고려된 보다 종합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최근 들어 이와 같은 요구를 반영한 경험적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한 예로 Falci(2006)는 가족구조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양친-친부모 가정, 이혼가정, 재혼가정, 비혼 동거가정을 구분하고 청소년들이 겪는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구조 변수 단독으로는 청소년 스트레스의 전체 변량 중 2% 정도만이 설명될 뿐이지만, 가족배경 및 가족관계 요인을 함께 고려했을 때는 약 9.1%까지 그 양이 증가했다. 아울러, 가족구조의 분포가 인종/민족 변수를 포함한 가족 배경 요인 및 가족 관계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갖기 때문에 그 두 요인을 통제했을 때, 청소년 스트레스에 대한 가족구조의 영향력은 일정 부분 감소하였다.

4) 기존 연구에 대한 요약 및 정리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구조의 영향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정상” 가정과 “결손” 가정이라는 이분법을 전제하고 일탈행동이나 정신건강 등에 있어서 “결손” 가정 청소년들이 갖는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는데, 첫째, 오늘날 가족구조의 다변화는 기존의 이분법만으로 그 현실이 충분히 포착되지 않는다. 이혼율의 증가 및 그로 인한 재혼 가정의 증가는 편부/모 가정, 친부-계모 가정, 계부-친부 가정 혹은 비혼-동거 가정 등 다양한 가족 구조로 나타나며 각각의

상황에서 청소년 사회화에 대한 상이한 영향을 끼친다. 최근의 경험적 연구 결과들은 다양한 가족구조 아래에서 다양한 부모-자녀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둘째, “정상”, “결손” 가정이라는 표현들에 함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양친-친부모 가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가족 구조를 “정상” 상태에 벗어난 일종의 일탈적 형태로 간주하며 따라서 그와 같은 “비정상적” 가족구조 자체를 청소년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 상당수의 청소년이 실제로 가족 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단순히 “비정상적 가족구조가 청소년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연구의 실질적인 의의를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최근 연구들은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청소년들이 사회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 특히 정신 건강의 문제와 복지, 삶의 질 등의 주제를 포함하며,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족 관계, 가족 규범의 변화 등을 설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셋째, 기존의 전통적 시각은 가족구조의 영향이 인종/민족 집단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몇몇 연구들은 문화적 배경의 다양성이 가족구조의 영향을 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미국 사회에서의 가족구조의 영향에 대해 체계적 이해를 위해서는 여러 인종/민족 집단의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종합적 연구가 요구된다.

4. 가족구조 영향의 실제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기존 문헌에 대한 검토 및 정리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전국 규모의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 자료(이하 “Add Health” 자료라고 표기)를 바탕으로 오늘날 미국 사회가 보여주는 가족구조의 다양성과 그로 인한 청소년의 가족 내 사회화 과정에 대한 영향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Add Health 자료는 1994년부터 2002년 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수집된 종단적 자료로서 미국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및 제반 환경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총 6,504 개의 사례 수와 5,800 개의 변수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청소년 사회화에 대한 다수의 가족 관련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부모의 이혼, 재혼, 비혼-동거, 동일 가구 거주 여부 및 그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형제, 자매 관계의 변화 등 모든 성립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가족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 가족구조의 다양성

먼저 Add Health 자료에 포함된 전체 6,504개의 사례 중에서, 흔히 한국이나 미국 사회에서 청소년 집단으로 간주되는 10대 중, 후반의 사례들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설문조사 당시 8, 9, 10, 11 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4,365 명만을 선택하였다. 이중 남자는 2,155명 여자는 2,210명 이었으며, 학년별로는 8학년 992명(22.7%), 9학년 1,107명(25.4%), 10학년 1,144명(26.2%), 11학년 1,122명(25.7%) 이었다. 중복 응답을 가능케 한, 인종/민족 배경별 분포를 살펴보면 스스로를 백인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2,897명 (66.4%),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1,088명(24.9%), 히스패닉 517(11.8%), 아시아계 미국인 173명(4.0%), 인디언 또는 미국 원주민 153명(3.5%) 등의 순이었다.

부모의 이혼 및 재혼 관계를 중심으로 가족구조를 살펴보면 <표 IV-4>에 서와 같이 총 10 가지의 상이한 형태가 나타난다.

<표 IV-4> 가족구조의 형태 (N=4,365)

가족구조의 형태	사례 수 (%)
친부, 친모 가정	2,310 (52.9)
편부(친부) 가정 (별거, 이혼, 사별)	157 (3.6)
편모(친모) 가정 (별거, 이혼, 사별)	1,133 (26.0)
친부, 계모 가정	93 (2.1)
계부, 친모 가정	375 (8.6)
계부, 계모 가정	12 (0.3)
편부(계부) 가정 (별거, 이혼, 사별)	6 (0.1)
편모(계모) 가정 (별거, 이혼, 사별)	20 (0.5)
양부, 양모 가정 (자녀 입양)	36 (0.8)
부모 없음	221 (5.1)
합계	4,365 (100.0)

전체 응답자 중 절반을 조금 넘는 52.9%가 양친-친부모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절반은 부모의 이혼 및 재혼 과정에 따른 다양한 가족 관계를 나타낸다. 이혼 후 어머니가 자녀양육권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편모(친모) 가정이나, 계부-친모 가정의 형태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족구조의 분포는 인종/민족 집단에 따라 차이를 드러낸다. <표 IV-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흑인 집단의 경우, 편모(친모) 가정의 비율이(44.3%) 양친-친부모 가정의 비율보다(33.2%) 더 높았다. 흑인 집단의 편모(친모) 가정의 비율은 백인 집단(20.5%)이나 히스패닉 집단(28.0%)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차이는 비혼-동거 가족 형태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비율이 흑인 집단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표 IV-5> 인종/민족 집단별 가족구조의 형태 (사례 수, %)

가족구조의 형태	백인	흑인	히스패닉
친부, 친모 가정	1,701 (58.7)	361 (33.2)	271 (52.4)
편부(친부) 가정 (별거, 이혼, 사별)	110 (3.8)	36 (3.3)	15 (2.9)
편모(친모) 가정 (별거, 이혼, 사별)	595 (20.5)	482 (44.3)	145 (28.0)
친부, 계모 가정	75 (2.6)	16 (1.5)	5 (1.0)
계부, 친모 가정	264 (9.1)	85 (7.8)	41 (7.9)
계부, 계모 가정	7 (0.2)	3 (0.3)	2 (0.4)
편부(계부) 가정 (별거, 이혼, 사별)	4 (0.1)	1 (0.1)	1 (0.2)
편모(계모) 가정 (별거, 이혼, 사별)	10 (0.3)	8 (0.7)	4 (0.8)
양부, 양모 가정 (자녀 입양)	32 (1.1)	1 (0.1)	1 (0.2)
부모 없음	98 (3.4)	95 (8.7)	32 (6.2)
합계	2,896 (100.0)	1,088 (100.0)	517 (100.0)

2)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만족도

Add Health 자료는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평가하는 여러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에서 부모-자녀 사이 관계의 질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세 가지 문항(아버지/어머니가 얼마나 다정하게 대하는가?, 아버지/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가?, 대체적으로 아버지/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가?)을 중심으로 집단별 차이와 가족구조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각 문항은 동의 정도를 묻는 5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대답을 의미한다. 가족구조의 형태는 <표 IV-4>에 제시된 10개 중, 충분한 사례 수가 확보된 5가지(친부-친모, 편부, 편모, 친부-계모, 계부-친모) 경우만을 고려하였다.

먼저 <표 IV-6>를 보면,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어머니와의 전반적인 관계 만족도가 다르다. 아버지에게 느끼는 다정함 정도를 묻는 문항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문항에서 남자 청소년들의 응답이 더 긍정적이었다($p<.01$). 이러한 차이는 인종 집단의 구분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표 IV-6> 부모-자녀 관계만족도: 성별 비교

성별	아버지가(와)			어머니가(와)		
	다정함	의사소통만족	관계만족	다정함	의사소통만족	관계만족
남자	4.130	4.010	4.169	4.424	4.161	4.379
여자	4.129	3.819	4.020	4.306	3.900	4.179

<표 IV-7> 아버지-자녀 관계만족도: 가족구조에 따른 비교

가족구조	아버지가(와)		
	다정함	의사소통만족	관계만족
친부, 친모 가정	4.183	3.957	4.140
편부(친부) 가정	3.942	3.739	3.936
친부, 계모 가정	4.366	4.129	4.409
계부, 친모 가정	3.818	3.689	3.809

<표 IV-6>과 <표 IV-7>은 각각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를 가족구조의 형태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먼저 아버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부-친모 가정에 비해, 계부-친모 가정 청소년의 경우 아버지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덜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p<.01$). 그러나 친부, 계부의 구분만으로는 만족도의 차이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비록 친아버지와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인해 생겨난 편부(친부) 가정의 경우, 세 문항 모두에서 친부-친모 가정의 경우보다 만족도가 낮기 때문이다($p<.01$). 편부(친부) 가정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덜 만족스러운 이유는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빠졌다고 보다는, 별거나 이혼으로 이어진 부모 사이의 갈등이 전반적인 부모-자녀 사이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표 4-5>의 편모(친모) 가정 역시, 어머니와의 관계 만족도가 친부-친모 가정의 경우보다 낮다($p<.01$)는 사실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표 IV-8>에서 흥미로운 결과는 아버지와의 관계만족도가 친부-친모 가정에서보다 친부-계모 가정에서 더 높다는 점이다($p<.01$).

<표 IV-8> 어머니-자녀 관계만족도: 가족구조에 따른 비교

가족구조	어머니가(와)		
	다정함	의사소통만족	관계만족
친부, 친모 가정	4.419	4.055	4.314
편모(친모) 가정	4.282	3.986	4.229
친부, 계모 가정	4.086	4.000	4.129
계부, 친모 가정	4.344	4.008	4.240

이에 대해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친부-계모 가정에서, 상대적으로 불편한 어머니-자녀 관계 때문에 그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서 아버지-자녀 사이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표 VI-8>의 결과를 해석할 때 충분한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만약 위의 설명이 맞다면, 친부-친모 가정의 경우보다 계부-친모 가정의 경우에서 어머니-자녀 사이의 관계가 더 긍정적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의 결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위의 경우에서와 같이, 재혼 가정에서 부모-자녀 사이의 관계는 단순히 가족구조의 형태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재혼 시 자녀의 나이와 혼인 지속 기간, 함께 거주하지 않는 친부 혹은 친모와의 관계, 재혼 부부 사이의 관계 등에 따라, 계부 또는 계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후의 연구에서 보다 자세한 경험적 분석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3) 부모-자녀 간 생활시간 공유와 부모자녀관계

(1) 부모와의 공유시간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관계의 질적 발전의 양적 전제로서 작용하기도 한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에 대한 공감의 높을 뿐 아니라,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폭하여 갈등이 적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부모-자녀간 생활시간 공유와 부모자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는 다음 <표 IV-9>와 같다.

<표 IV-9>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부모-자녀 공유생활 시간에 대한 노력

부모의 부모-자녀 공유생활 시간에 대한 노력	비율
아버지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신다	69.0 %
어머니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신다	90.9%

자료: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2006).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라는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아버지 69.0%, 어머니 90.9%인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이 자각하기에는 어머니 쪽이 아버지보다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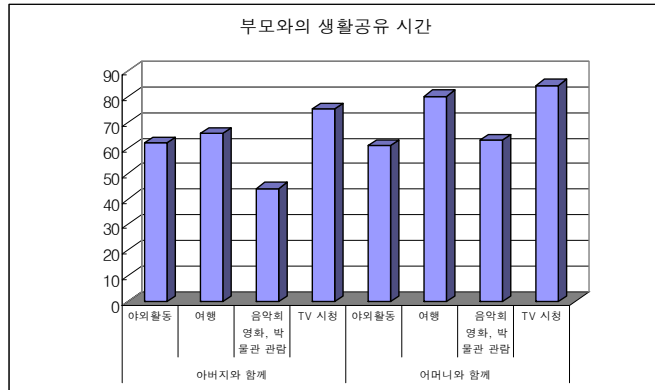
(2) 부모와의 공유시간의 내용

스포츠 등 야외활동, 여행, 음악회(영화, 박물관 등)관람, TV시청에 대한 부모-자녀 간 공유시간을 조사하였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는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씩 한다’, ‘자주 한다’의 4점 척도에 의거하여 답변하였다. ‘스포츠 등의 야외활동을 아버지/어머니와 얼마나 함께 하십니까?’라는 항목에 대해서 미국은 아버지와는 62.6%, 어머니와는 61.1%로 아버지 어머니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행을 아버지/어머니와 얼마나 함께 하십니까?’라는 항목에 대해서 한국의 경우 아버지와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5.7%였고, 어머니와는 80.3%로 어머니와의 여행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음악회(영화, 박물관 등) 관람을 아버지/어머니와 얼마나 함께 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아버지와는 44.2%, 어머니와는 62.9%로 어머니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TV 시청을 아버지/어머니와 얼마나 함께 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아버지와는 75.2%, 어머니와는 84.5%였다. 대체적으로 볼 때, 미국 청소년들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생활시간 공유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 부모와의 문화 활동 공유

자료: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2006).

4) 부모-자녀간 신뢰 및 친밀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에서의 부모·자녀 사이의 친밀감을 분석하였다. 이 영역의 질문들에 대해 응답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에 의거하여 답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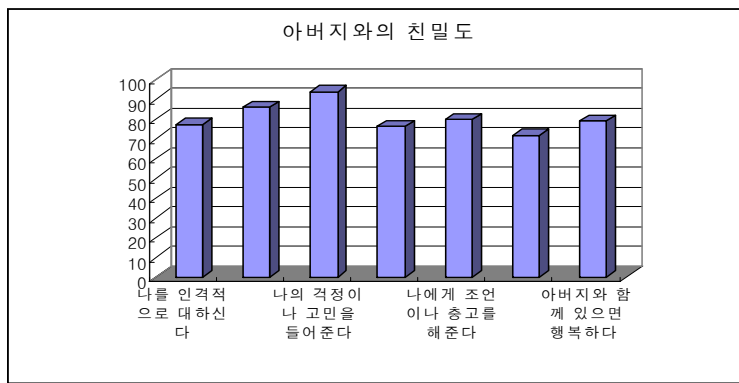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는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아버지 77.4%, 어머니 92.2%로 미국에서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인격적 대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라는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아버지 61.5%, 어머니 85.8%로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다.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들어 준다’라는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미국은 아버지 72.6%, 어머니 93.8%로 역시 어머니가 주로 고민 상담을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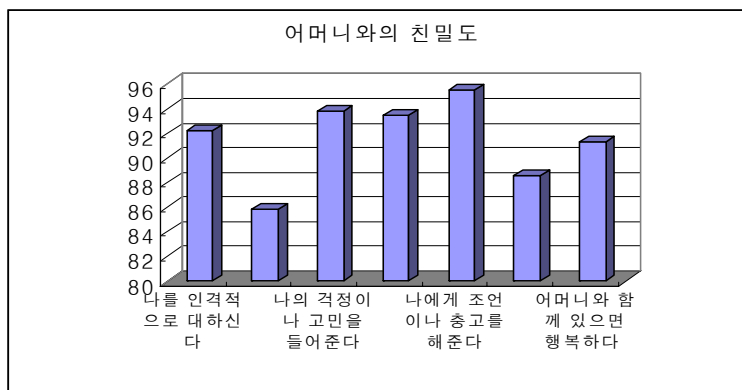
‘나의 능력이나 노력을 높게 평가해 준다’라는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아버지 76.3%, 어머니 93.5%여서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다. 어머니가 자녀의 능력에 대해 아버지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해 준다’라는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아버지 79.6%, 어머니 95.5%였다. 미국 가족에서는 어머니가 조언과 충고를 하는 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부모·자녀간 신뢰 및 친밀도에 있어서 아버지-자녀보다 어머니-자녀 사이의 관계가 보다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V-3] 아버지와의 친밀도

자료: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2006).



[그림 IV-4] 어머니와의 친밀도

자료: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2006).

5) 학업 성취에 대한 욕구와 전망

청소년의 사회화 결과 지표 중,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학업 성취의 정도와 그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불평등이 야기하는 구조적 제약을 내재화하는 정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관심이 대상이 된다. Add Health 자료에서 학업성취욕구 및 학업성취전망은 각각 대학 진학에 대한 욕구 정도와 대학 진학의 실제 가능성을 묻는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욕구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표 IV-8>의 결과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가족구조의 영향이 인종 집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백인 집단의 경우 친부-친모 가정의 청소년보다 편부($p<.01$), 편모($p<.05$) 가정 자녀들의 학업성취욕구가 낮았다. 그러나 흑인 집단의 경우에는 친부-친모 가정과 편부, 편모 가정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학업성취전망과 관련해서도, 친부-친모 가정과 편부, 편모 가정 사이의 차이는 흑인 집단보다 백인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친부-친모 가정과 재혼 가정을 비교했을 때 학업성취욕구, 학업성취전망의 차이는 친부-친모 가정과 편부, 편모 가정을 비교했을 때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별도의 도표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자기효능감에 대한 비교를 마지막으로 실시하였다. 자기효능감 정도는 5점 척도로 이루어진 4가지 문항의 합산을 통해 측정되었는데, 가족구조의 차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Jones와 Jolly(2003)의 연구에서도 가족구조와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 사이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바 있는데, 마찬가지로 일정한 유형이나 관계의 방향을 발견하지 못했다

<표 IV-10> 학업성취에 대한 욕구와 전망: 가족구조 및 인종에 따른 비교

가족구조	백인		흑인	
	학업성취욕구	학업성취전망	학업성취욕구	학업성취전망
친부, 친모 가정	4.50	4.28	4.66	4.50
편부(친부) 가정	4.18	3.77	4.58	4.25
편모(친모) 가정	4.30	3.87	4.54	4.10
친부, 계모 가정	4.53	4.11	*	
계부, 친모 가정	4.52	4.13	4.58	4.26

주 : * 사례수 부족

5. 가족 내 사회화에 대한 최근 연구경향

가족 내 사회화 과정은 단순히 부모 세대의 유산을 학습하거나 모방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화에 대한 전통적 시각을 극복하려는 최근 연구자들은 계승과 학습이라는 단편적인 원리 대신에 부모, 자녀 사이의 상호 영향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설명 방식을 제공한다. 지위 계승의 메커니즘(Biblarz and Raftery, 1993), 부모의 영향에 대한 심리학적 귀인 이론의 적용(Benson et al, 1992),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통한 설명(Starrels and Holm, 2000) 등은 가족 내 사회화 연구에 있어서 변화된 연구 경향을 보여준다.

1) 지위 계승의 문제

가족 내 사회화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자녀가 부모의 지위를 계승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의 사회 경제적 위치를 이어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 결부된 부모의 태도와 가치 체계를 함께 습득한다는 데에 초점이 모아진다. 지위 계승의 메커니즘을 통해 사회화 과정을 이해하면, 가족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같은 구조적 조건에 따라 사회화의 결과로 간주되는 자녀들의 심리적, 문화적 지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부모들은 주거환경, 학교 등에 있어서 자신의 현재 위치와 걸맞은 사회적 환경에 자신의 자녀들을 위치지우기 때문에 자녀 세대의 구조적 기회와 제약은 부모의 지위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는 자녀들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데 있어 무엇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인식과 기대를 달라지게 만든다. 아울러 교육을 통한 성취 가능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자녀들의 태도, 가치, 심리 상태 등에서도 차이를 가져온다(Bengtson et al, 2002; Biblarz and Raftery, 1993). 결과적으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지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화 결과 지표에 대해서도 영향력 있는 변수가 된다.

사회화 메커니즘으로서의 지위 계승은 사회 구조와 인성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Kohn(1969)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Kohn and Schooler, 1983)와

깊은 관련이 있다. 계급적 위치에 따른 직업 특성과 자녀 양육 방식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Kohn과 그의 동료들은 아버지 세대의 서로 다른 직업 환경이 결과적으로 자녀세대의 인성 구조를 달라지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독립성과 독창성을 특징으로 하는 화이트칼라 직업의 경우, 이러한 직무 특성이 자녀 양육 과정에 있어서도 일반적 원칙으로 발전하고 마찬가지로 블루칼라 직업이 경우, 규율에 대한 복종과 순종이 자녀 양육의 일반 원칙이 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작업 환경으로 나타나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위치에 따라 자녀들의 가치체계와 인성구조가 달라지는 것이다.

2) 사회화를 설명하는 기본 메커니즘

청소년 사회화에 대한 전통적인 연구 경향은 사회화 과정을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이끌어 내거나 사회화의 직접적인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이와 같은 경향을 넘어서서, 사회화 과정이 진행되는 구체적인 조건과 시기, 맥락 등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인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화를 단순히 전체 사회의 존속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거나 또는 바람직한 역할 점유자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바라보던 관점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들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기존의 심리학, 사회학 이론을 발전시켜 사회화의 구체적 메커니즘을 밝히려 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1) 인지적 스키마(Cognitive Schemas)

Benson과 그의 동료들(1992)은 귀인이론을 바탕으로 한 인지적 스키마(cognitive schemas)의 개념을 통해 사회화의 근본 메커니즘을 설명하려 한다. 이들의 연구는 부모, 자녀 관계나 혹은 가족 내 다른 형태의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상호간 영향의 결과가 유사한 행위 양식이나 태도를 발전시키게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청소년기나 청년기의 사람들이 친밀한 인과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태도나 행위에 대해 행하는 귀인 방식은 그들이 어린 시절에 친밀한 인과관계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를 반영한다. 또한 그들이 부모들의 관

계를 보며 습득한 인과관계 설명 방식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형성된 친밀한 관계에 대한 인과 스키마(causal schemas)는 결과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화 과정의 기본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태도가 얼마나 유사한지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 자녀의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부모의 실제 태도가 아니라 자녀들이 인지하고 판단한 부모의 태도였다(Acock and Bengtson 1980). 즉 부모의 태도에 대한 자녀의 귀인이 자녀 세대의 태도를 예측하는 데에 있어서 더 강력한 예측력을 갖는다는 뜻이다.

각각의 사람들이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 그들이 취하는 귀인 방식은 궁극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의 인과 스키마가 형성되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Benson과 그의 동료들(1992)이 주장하는 바는 결국 인과 스키마가 형성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사회화 과정의 근본 메커니즘을 밝히는 작업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심리적 메커니즘의 바탕 위에서 사회화를 설명하는 것이 어린 시절의 경험이 어떻게 성인기의 친밀한 관계에서 구현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다른 사회화 모델들에 비해 더 효과적인 설명 방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정의 효과(Defining Effect)

Benson 등의 이론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을 설명하는데 있어 심리학적 접근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면, Starrels와 Holm(2000)은 사회학 이론에 근거해 부모, 자녀 사이의 영향을 설명한다. 이들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상호작용에서의 정의 효과(defining influence)가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사회화 메커니즘이 비교되는데, 하나는 부모의 행위나 그 행위의 결과가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모델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의 기대가 반영된 정의가 실제 행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정의 효과이다.

모델 효과와 정의 효과는 예컨대, 배우자를 결정하거나 양육방식을 결정

하는 구체적 상황에 있어서 서로 다른 설명 방식을 제공한다. 모델 효과에 따르면 자녀들은 결혼을 하고 그 이후의 결혼 생활을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 부모 세대의 경우를 일종의 모델로 삼아 그와 유사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의 효과에서는 부모의 실제 모습이나 상황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오히려 실제의 모습과 차이가 날 수도 있는 부모의 기대나 정의가 자녀세대의 결혼과 출산 등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가정한다.

Starrels와 Holm(2000)의 연구는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모델 효과보다 정의 효과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모방에 의한 단순 학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 자녀 사이의 상호관계에서 부모의 기대가 투영된 정의와 규정, 그리고 이를 인지하고 내재화하는 자녀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 세대의 태도나 규범을 습득해 가는 과정을 사회화의 한 부분이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사회 학습 이론에 근거해 부모의 영향을 설명하는 단순함을 극복하게 해 준다. 아울러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제공하는 이론적 근거를 통해 사회화 과정의 내면에 존재하는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6. 가족 내 사회화를 둘러싼 논쟁: 가족은 여전히 중요한가?

새로운 사회 구성원에 대한 사회화는 가족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능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가족을 둘러싼 현대 사회의 변화들은 이러한 가족의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이혼율의 증가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조 출현, 가족임금(family wage) 개념의 쇠퇴, 여성 고용의 증대와 전통적인 성별분업의 변화 등은 지배적 가족 형태로 여겨지던 핵가족이 더 이상 사회화의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기도 한다.

1) 결혼과 가족의 쇠퇴

높은 이혼율과 그로 인한 전형적 핵가족 구조의 해체는 산업화를 경험한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결혼에 대한 미국 사회의 특징 역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과 비혼 동거 가족의 꾸준한 증가로 요약된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해 Popenoe(1993)는 19세기 이래로 미국 사회에서 가족이 갖는 기능이 점차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정도가 70-80년대를 거치면서 더욱 심해졌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가족 구조의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들, 특히 자녀들이 부담해야 할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해로움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 이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기혼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확대, 문화적 측면에서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적 규범의 확산이 가족의 기능을 약화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실제로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부모의 이혼이나 편부/모 가족 환경이 자녀들의 사회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Amato(1996)는 이혼의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부모의 이혼 경험이 자녀의 이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즉 일반적인 사회화의 가설대로, 부모세대로부터 배우자와의 관계를 꾸려나갈 모델을 발견하지 못한 자녀들이, 그들의 결혼생활을 유지시킬 수 있을 만한 기술이나 태도를 배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Webster와 그의 동료들(1995)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부모세대 결혼 생활의 문제들이 자녀세대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보여주었다. 그들은 자녀 사회화에 있어서 부모세대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구분해 설명하는데, 첫째는 부모의 감독, 통제 소홀 및 역할 모델의 부재이고, 둘째는 부모의 갈등과 불화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악영향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자녀들의 결혼 생활 만족도와 관련해 살펴보았을 때,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 경력 자체가 자녀들이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자신들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안정적인가에 대한 주관적 인지와 평가는 부모세대의 이혼 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어린 시절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자신들의 결혼 생활이 불안정하다고 여기고, 자신들의 현재 결혼 생활 역시 이혼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염려

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Feng과 그의 동료들(Feng et al, 1999)의 연구에서는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대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평가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그러한 관련성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결과, 이혼 경력이 있는 부모를 둔 딸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혼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아들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혼생활의 질에 있어서는 부모세대의 영향력이 딸과 아들 모든 경우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들이 부모의 결혼생활과 유사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는 모델효과의 예상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다만 자녀들이 부모의 결혼 생활을 오랜 동안 지켜보고 학습한 결과로 모델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모델효과에 대한 검증이 보다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동거 기간이 비슷한 자녀들을 비교해야 한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연구들 이외에도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사회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다뤄졌다. 이들이 지적하는 바는 공통적으로, 부모의 이혼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자녀 사회화의 단절을 초래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을 감소시키며, 청소년기 자녀들이 비행이나 이탈행동에 연루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예컨대, Ross and Mirowsky, 1999; Ge et al, 1994). 아울러 부모의 이혼은 자녀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정신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예컨대, Wallerstein et al, 2000; Popenoe, 1993).

그러나 모든 연구자들이 부모의 이혼과 재혼이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상반된 시각을 제시하는 이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자녀들의 사회화 결과 지표들이 여타의 양친-친부모 가정의 자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Emery, 1999; Aseltine, 1996; Ahrons, 1994). 유사한 맥락에서 Bengtson(2001)은 부모-자녀 사이의 관계 및 다른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관계가 부모의 결별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회복 능력과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을 가지고 주장한다. 즉 이혼이 자녀들에게 단기간의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녀들의 성장 이후를 살펴보았을 때, 달라진 가족 구조와 기능을 경험한 자녀들이 그런 경험이 없는 자녀들의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Bengtson(2001)은 가족의 회복 능력과 적응 능력을 논함에 있어 확대가족(multi-generational family)의 기능을 강조한다.

Anselme(1996)은 편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이 양친-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에 비해 감정적 충격을 다스리는 데 있어 오히려 더 능숙했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바꿔 말하면,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나 경제적 위협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이에 대한 적절한 감정 대응 능력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편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이 더 능숙했다는 뜻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이미 경험했던 청소년들이 갖게 되는 일종의 학습효과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모의 이혼이 미치는 악영향이 과장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반론으로 언급된다.

2) 동료집단의 영향이 더 중요한가?

기본적인 사회화 기관으로서의 가족의 기능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친구나 동료집단의 영향에 더 큰 관심을 둔다. 대표적인 예로 Harris(1998)는 자녀들의 삶의 방향이나 미래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이 결정적이라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다. 아울러, 어른이 되고 난 다음의 결과가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이 상당 부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화 과정 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 친구들과 또래 집단이다. 개개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갖게 되는 데에도 유전적 요인과 가족 이외의 환경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Harris(1998)가 생각하는 문화는 부모가 일련의 학습과정을 통해 자녀에게 계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를 포함한 성인들의 영향은 간접적인 경우

가 많다.

부모와 가족의 영향을 중시하는 사회화 연구의 기본 가정 중의 하나는 부모가 자녀와의 상호작용 중에 취하는 행동이나 태도가 자녀의 미래 행동에 기본적인 지침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Harris(1998)는 유전적 요인을 통해 자녀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면, 부모의 영향은 궁극적으로 자녀들이 또래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받게 되는 영향보다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사회화와 관련된 몇몇 영역들에서는 부모의 영향보다 또래 집단의 영향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 비행과 일탈에 대한 연구들에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즉 비행 친구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일탈 행동의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비행의 조장이나 통제에 대한 부모의 영향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다. 한편, Aseltine(1995)은 다른 시각에서 부모와 친구집단의 영향을 살펴본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어느 한 쪽의 영향이 더 크다고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화 과정의 복잡성을 간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비행에 연루되는 과정에서도 부모와 친구집단의 영향은 각각의 작용이 상호 강화되는 방식으로 동시에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일방의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화의 다층적인 성격을 훼손하는 접근이 되는 것이다.

청소년 비행과 관련해서 부모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던 Harris(1998)의 주장과 상반되는 연구도 있다. Barnes와 그의 동료들(2000)은 약물 중독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의 지원과 통제 정도에 따라 청소년기 자녀들이 음주를 시작하게 되는 나이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이후의 음주 습관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청소년 음주가 친구 집단과의 상호 관계 맥락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의 양육방식과 양육태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3) 여성의 경제활동이 자녀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가족의 사회화 기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또 하나의 사회현상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특히 초창기 사회화 연구자들은 가사 이외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일종의 사회 문제로 간주하였다. 이들은 가족의 사회 경제적 지위나 여성의 직업적 위치, 여성 노동이 가족들 간의 상호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자녀 양육 시기의 여성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자녀 사회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을 하였다(Acock et al, 1982). 그러나 여성의 경제 활동이 일반적 현상으로 확대되고, 전통적 성별 분업에 내재해 있는 이데올로기로서의 문제점이 지적되기 시작하면서 부정적 영향만을 강조하는 일방적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영하듯, 여성 노동의 확대와 자녀 사회화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었지만, 그 결과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자녀 사회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어머니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즉 전통적인 가족 내 성별 분업 상황에서 자녀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던 어머니가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점차 그 영향력을 잃어간다는 뜻이다. 그러나 전업 주부의 경우와 직업이 있는 경우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주장은 충분한 경험적 뒷받침을 받지 못하다. 또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절대적인 시간의 양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직업을 갖고 있는 어머니들의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만으로 사회화에 대한 영향을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Kalmijn, 1994).

어머니의 경제 활동이 자녀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경제 활동 참여 여부나 노동시간이 길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어머니의 교

육 수준이나 직업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는다. Parcel과 Menaghan(1994)은 일차적으로 부모가 모두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 소득 정도에 따라 자녀 양육의 조건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어머니가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직장에서의 경험이 자녀 사회화가 중요한 자원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머니의 경제활동을 자녀 사회화의 부정적 결과와 관련지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Wolfer와 Moen(1996)의 연구는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여가 미치는 자녀 사회화에 대한 영향이 자녀의 성별 및 인종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특별히 아들보다는 딸의 경우, 인종적으로는 흑인의 경우에 있어서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여가 사회화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사회화 결과 지표들 중 자녀의 학업 성취에 초점을 맞춘 Kalmijn(1994)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갖고 있는 직업의 사회 경제적 위치에 따라 자녀들의 학업 성적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관계는 아버지의 직업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유지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어머니의 직업과 자녀의 학업 성취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는 여성노동의 성격이 변화함에 따라 함께 변화는 경향이 있다. 즉 과거 대부분이 여성 노동이 생계유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때는 그에 따르는 자녀 사회화의 부정적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 여성이 사회 진출이 일반화된 시점에서는 그와 같은 일반화에 무리가 따른다는 뜻이다.

부모의 직업특성과 자녀 사회화 사이의 관계에 대한 대표적 연구인 Kohn(1977)의 저작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찾을 수 있다. 그가 주장하는 바는, 어머니의 경제 활동이 자녀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은 궁극적으로 어머니고 갖고 있는 직업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전문직에 종사하는 어머니를 둔 경우, 자녀들은 어머니가 교육적 성취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러한 가치를 수용하고 내재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는 여성이 수가 많아지면서 어머니의 직업적 성취는 자녀들에게 일종의 역할 모델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따라서 어머니의 직업이 미치는 영향은 전통적으로 아버지의 직업이 자녀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으로 받아들여졌던 것들과 마찬가지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V. 결론

1. 요약 및 정리
2. 청소년 사회화 연구에 대한 제안점

V. 결론

1. 요약 및 정리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미국 사회 청소년들의 생활 모습과 가족 내 사회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근 문헌 자료들을 중심으로 경험적 연구 결과와 논쟁점들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문헌 검토에 앞서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먼저 소개하고 각 이론이 갖는 장점과 한계를 언급하였다. 이어서 청소년과 노동, 청소년과 성, 청소년과 폭력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미국 청소년들의 생활 실태에 대해 서술하였다. 끝으로 청소년의 가족 내 사회화 관련된 쟁점들 중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영향과 가족 내 사회화 과정에 대한 최근 연구 경향, 그리고 사회화 기관으로서의 가족을 둘러싼 논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사회 문화적 재생산의 관점, 하위문화론적 접근, 생애과정론의 관점, 해석적 관점은 청소년 사회화를 설명하는 각각의 상이한 시각으로서 수동적 학습 과정으로 사회화를 이해하던 기존의 관점을 극복하려 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사회 문화적 재생산의 관점은 불평등한 사회 체계와 개인의 계급적 위치와 같은 구조적 요인들이 어떻게 청소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하위문화론적 접근은 사회화 과정이 단순히 기존 문화의 재생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행위자들이 보다 창조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생애과정론의 관점은 개인의 삶에 대한 종단적 접근을 그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횡단적 연구들에서 포착할 수 없었던 사회화 과정의 역동성을 잘 보여준다. 해석적 관점은 사회화 과정의 집합적, 발현적 속성 즉, 청소년들의 삶을 조건지우는 구조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인정하지만 청소년 집단 나름의 문화적 실천을 통해 구조의 영향으로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결과들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 출현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

이론들은 나름대로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상호 보완적인 입장에서 청소년 사회화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청소년기의 노동, 성, 범죄와 관련된 문제들은 오늘날의 미국 청소년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들이다. 먼저 청소년 노동과 관련하여 언급되어야 할 점은, 학업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대단히 보편적인 현상이며 그 과정 자체가 학교 졸업 이후의 본격적인 직업 활동을 위한 사회화 과정의 한 부분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국 사회의 청소년 노동과 비교했을 때 특히 두드러진 특징이다. 아울러 청소년 노동에서도 일반 노동 시장에서의와 마찬가지로 성별과 인종에 따른 구조적 불평등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가족의 경제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더욱 분명해진다.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자료에서 최근 주목을 받는 것은 10대의 임신과 낙태, 성병 감염 비율이 1990년대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전히 성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 빈곤층 소수 인종 여성의 성병 감염률이 특히 높다는 점 때문에 청소년 성교육에 있어서 성병과 관련된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쟁점들은 한국 사회에서의와 마찬가지로 매스미디어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 거리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성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청소년 범죄와 폭력의 심각성은 대다수 미국인들이 공통된 우려와 관심을 표명하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청소년 폭력 문제에 대한 언론의 과장과 오해에 일정 부분 근거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실제로 범인 체포율에 근거한 청소년 폭력 범죄의 비율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학교와 인근 지역의 강력 사건의 빈도 역시 마찬가지로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청소년 폭력 범죄에 관련하여 또 다른 쟁점중의 하나는 범인의 체포와 처벌에 있어서 인종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소수 인종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상대적으로 높은 범죄율이 실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며 사법 체계에 반영된 인종 편견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 청소년 폭력과 인종 문제를 다루

는 일단의 연구자들은 객관적 범죄 사실과 무관한 인종적 편견이 더 많은 소수 인종 청소년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미국의 청소년 사회화에 관련된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영향이다.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첫째 오늘날 많은 수의 미국 청소년들이 양친-친부모 가정 이외의 가족구조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달라지는 부모-자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는 실질적 필요 때문이다. 둘째 가족구조의 변화가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규범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즉 청소년 사회화를 가족 관계의 결과물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했을 때, 이를 둘러싼 구조와 규범의 변화에 관심을 쏟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에서,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불리함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필요 때문이다.

가족구조의 영향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정상’ 가정과 ‘결손’ 가정이라는 이분법을 전제하고 일탈행동이나 정신건강 등에 있어서 ‘결손’ 가정 청소년들이 갖는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양친-친부모 가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가족 구조를 ‘정상’ 상태에 벗어난 일종의 일탈적 형태로 간주하며 따라서 그와 같은 ‘비정상적’ 가족구조 자체를 청소년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 상당수의 청소년이 실제로 가족 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단순히 ‘비정상적 가족구조가 청소년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연구의 실질적인 의의를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최근 연구들은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청소년들이 사회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 특히 정신 건강의 문제와 복지, 삶의 질 등의 주제를 포함하며,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족 관계, 가족 규범의 변화 등을 설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초의 사회화 기관이라는 가족의 오랜 사회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둘러싼 현대 사회의 변화들은 이와 같은 전통적 기능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혼율의 증가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조 출현, 사회화 과정에서 친구 집단

의 역할 증대, 여성 고용의 증대와 전통적인 성별분업의 변화 등은 지배적 가족 형태로 여겨지던 핵가족이 더 이상 사회화의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기도 한다.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며, 사회화 기관으로서의 가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설명들을 시도하고 있다.

2. 청소년기 사회화 연구에 대한 제안점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 사회 청소년들의 생활 모습과 가족 내 사회화 과정에 대한 연구들은 청소년 사회화 연구 일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청소년 사회화 연구를 위해서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첫 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의 가족 내 사회화 연구에 있어서 국가 간, 문화 간 비교 연구의 필요성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부모의 이혼 및 재혼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변동, 계부/모와 청소년기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 새로운 가족 구성원 사이의 의사소통 문제 등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국 사회의 가족구조와 그에 따른 청소년의 가족 내 사회화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미국 사회의 특징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 한국 사회의 가족 구조 변동과 그에 따른 청소년 사회화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가족구조의 차이에 따른 영향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청소년기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을 통해 동일한 가족 구조의 변화를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영향은 어떠한 가족문화가 존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상이한 가족문화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국가 간, 문화 간 비교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 사회화에 대한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이 서로 상충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연구 의제를 설정할 때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미국 사회의 청소년 사회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여러 연구자들은 자신들이 근거하고 있는

이론적 관점, 자료의 성격과 연구 방법에 따라 동일한 질문에 대해 상이한 연구 결과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그 원인, 청소년 노동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 구조의 차이가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는 일관된 결론을 보여주지 않는다. 더욱이 각각의 연구 결과가 인종, 민족 집단의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더욱 복잡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사회를 배경으로 한 연구는 한국에서의 그것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청소년 사회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회화 이론의 보편성과 일반성을 강조하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 생활양식을 면면히 들여다봄으로써, 청소년의 의식 및 가치관, 행동철학에 대해 고찰하고 동시에 그들의 기초사회화를 위한 시공간적 환경인 ‘가족’에 대한 통찰력을 형성할 수 있는 향후 후속 연구들이 진행될 때, 가족 내에서의 사회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또래문화, 더 나아가 세계시민으로서의 청소년 사회화에 연구에 대한 새로운 성장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한국청소년개발원(2006).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Acocck, A. C., D. Barker, and V. L. Bengtson(1982). "*Mother's Employment and Parent-Youth Similar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441-455.
- Acocck, A. C. and V. L. Bengtson(1980). "*Socialization and Attribution Processes: Actual versus Perceived Similarity among Parents and Yout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3): 501-515.
- Acocck, A. C. and D. H. Demo(1994). *Family Diversity and Well-Being*. Thousand Oaks, CA: Sage.
- Adlaf, E. M. and F. J. Ivis(1996). "*Structure and relations: the influence of familial factors on adolescent substance use and delinquency.*"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Substance Abuse* 5: 1-19.
- Ahrons, C. R. 1994. *The Good Divorce*. New York Harper Collins.
- Amato, P. R. 1996. "Explaining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628-640.
- Amato, P. R. and B. Keith. 1991. "Parental Divorce and Well-Being of Childre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 26-46.
- Amey, C. H. and S. L. Albrecht. S. L 1998. "Race and ethnic differences in adolescent drug use: the impact of family structure and the quantity and quality of parental interaction." *Journal of Drug Issues* 28: 283-298.
- Annie E. Casey Foundation. 1998. *When Teens Have Sex: Issues and Trends*. Kids Count Special Report. Washington, DC: Author.
- Arditti, J. A. 1999. "Rethinking Relationships between Divorced Mothers and Their Children: Capitalizing on Family Strengths." *Family Relations* 48: 109-19.
- Arnett, J. J. 1999. "Adolescent Storm and Stress, Reconsidered." *American Psychologist* 54(5): 317-326.
- Aseltine, R. H. 1995. "A Reconsideration of Parental and Peer Influences on Adolescent Devianc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 103-121.
- Aseltine, R. H. 1996. "Pathways Linking Parental and Peer Influences on Adolescent Deviance." *Journal of Health and Science Behavior* 37: 133-148.
- Austin, R. 1978. "Race, father-absence, and female delinquency." *Criminology* 15:

487-504.

- Bandura, A. 1964. "The Stormy Decade: Fact or Fiction?" *Psychology in the Schools* 1: 224-231.
- Barling, J. and E. K. Kelloway. 1999. *Young Workers: Varieties of Experienc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nes, G. M., A. S. Reifman, M. P. Farrell, and B. A. Dintcheff. 2000. "The Effects of Parenting on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 Alcohol Misuse: A Six-Wave Latent Growth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175-186.
- Barrett, A. E and R. J. Turner. 2006. "Family structure and substance use problems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examining explanations for the relationship." *Addiction* 101(1): 109-120.
- Bengtson, V. L. 1989. "The Problem of Generation: Age Group Contrasts, Continuities, and Social Change." Pp 25-52 in *The Course of Later Life: Research and Reflection*, edited by V. L. Bengtson and K. W. Schaie.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 Bengtson, V. L. 2001. "Beyond the Nuclear Family: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Multigenerational Relationships in American Socie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 1-16.
- Bengtson, V. L., T. J. Biblarz, and R. E. L. Roberts. 2002. *How Families Still Matter: A Longitudinal Study of Youth in Two Genera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nson, J. J., J. Ardit, J. T. R. De Ariles, and S. Smith. 1992.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Attributions in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Intimate Others." *Journal of Family Issues* 13: 450-464.
- Biblarz, T. J. and A. E. Raftery. 1993. "The Effects of Family Disruption on Social Mobi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 97-109.
- Bostrom, M. 2001. *The 21st century teen: Public perception and teen reality: A summary of public opinion data*. Washington, DC: The Frameworks Institute.
- Bourdieu, P and J.-C. Passeron. 1976. *Reproduction in Education, Society, and Culture*. Translated by R. Nice. Beverly Hills: Sage.
- Bowles, S. and H. Gintis. 1976. *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 Bracey, G. 1998. "Tinkering with TIMSS." *Phi Delta Kappan* 80: 32-38.
- Brake, M. 1985. *Comparative Youth Culture: The Sociology of Youth Cultures and Youth*

- Subcultures in America, Britain, and Canada. London and Boston: Routledge and Kegan Paul.
-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00. The Employment Situation: January 2000.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Labor.
- Burnside, M. A., P. E. Baer, R. J. McLaughlin, and A. D. Pokorny. 1986. "Alcohol use by adolescents in disrupted famili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10: 274-278.
- Butts, J. A. 2000. *Youth Crime Drop*.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Justice Policy Center.
- Cicourel, A. V. 1974. *Cognitive Sociology: Language and Meaning in Interaction*. New York: Free Press.
- Clingempeel, W. G., J. J. Colyar, E. Brand, and E. M. Hetherington. 1992.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Maternal Grandparents: A Longitudinal Study of Family Structure and Pubertal Effects." *Child Development* 63:1404-22.
- Conger, R. D. and W. Chao. 1996. "Adolescent Depressed Mood." Pp. 157-75 in *Understanding Differences between Divorced and Intact Families*, edited by Ronald Simmons. Thousand Oaks, CA: Sage.
- Corsaro, W. A. 1985. *Friendship and Peer Culture in the Early Years*. Norwood, NJ: Ablex.
- Corsaro, W. A. and T. A. Rizzo, T. A. 1988. "Discussion and Friendship: Socialization Processes in the Peer Culture among Italian Preschool Childr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 879-894.
- DeLeire, T. and A. Kalil. 2002. "Good Things Come in Threes: Single-Parent Multigenerational Family Structure and Adolescent Adjustment." *Demography* 39(2): 393-413.
-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2000. *Youth Violence: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Rockville, MD: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 Dorfman, L., K. Woodruff, V. Chavez, and L. Wallack. 1997. "Youth and Violence on Local Television News in California."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7(8): 1311-1316.
- Duffett, A., J. Johnson, and S. Farkas. 1999. *Kids These Days '99: What Americans Really Think about the Next Generation*. New York: Public Agenda.
- Elam, S. M., L. C. Rose, and A. M. Gallup. 1994. "The 26th Annual Phi Delta

- Kappa/Gallup Poll of the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Public Schools." *Phi Delta Kappan* 75(1): 41-56.
- Elder, G. H. 1985. *Life Course Dynamics: Trajectories and Transitions, 1968-1980*.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Elder, G. H., C. C. Evans, and S. Parker. 1995. *School Talk: Gender and Adolescent*.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Emery, R. E. 1999. *Marriage, Divorce, and Children's Adjustment*. Thousand Oaks, CA: Sage.
- Everhart, R. B. 1983. *Reading, Writing, and Resistance: Adolescence and Labor in a Junior High School*. Boston: Routledge.
- Falci, C. 2006. "Family Structure, Closeness to Residential and Nonresidential Parents,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Early and Middle Adolescence." *The Sociological Quarterly* 47(1): 123-146.
- Feng, D., R. Giarrusso, V. L. Bengtson and N. Frye. 1999.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Quality and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451-463.
- Flewelling, R. and K. Bauman. 1990. "Family structure as a predictor of initial substance use and sexual intercourse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71-81.
- Furstenberg, F. F. Jr. and J. O. Teitler. 1994. "Reconsidering the Effects of Marital Disruption: What Happens to Children of Divorce in Early Adulthood?" *Journal of Family Issues* 5: 173-90.
- Gates, G. J. and F. L. Sonenstein. 2000. "Heterosexual Genital Sexual Activity among Adolescent Males: 1988 and 1995."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32(6): 295-297.
- Ge, X., R. D. Conger, F. O. Lorenz, and R. L. Simons. 1994. "Parents' Stressful Life Events and Adolescent Depressed Mood."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5: 2-44.
- Gil, A. G., W. A. Vega and F. Biafora. 1998. "Temporal influences of family structure and family risk factors on drug use initiation in a multiethnic sample of adolescent boy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7: 373-393.
- Glass, J., V. L. Bengtson, and C. C. Dunham. 1986. "Attitude Similarity in Three-Generation Family: Socialization Status Inheritance or Reciprocal Influ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 685-698.

- Good, T. and J. Brophy. 2003. *Looking in Classrooms*. New York: Longman.
- Gumbiner, J. 2003. *Adolescent Assessment*. NJ: John Wiley and Sons.
- Hagan, F. and M. Sussman. 1988. "Deviance and the Family: Where have we been and where are we going?" *Marriage and Family Review* 12: 1-22.
- Hall, G. S. 1904. *Adolescence: Its psychology and its relations to physiology, anthropology, sociology, sex, crime, religion, and education*. New York: D. Appleton & Company.
- Harris, J. R. 1998. *The Nurture Assumption: Why Children Turn out the Way They Do*. New York: Free Press.
- Hebdige, D. 1979. *Subculture: The Meanings of Style*. London: Methuen.
- Herman, A. M. 2000. *Report on the Youth Labor Force*. Washington, DC: U. S. Department of labor.
- Hetherington, M. E. 1989. "Coping with Family Transitions." *Child Development* 60: 1-14.
- Hitlin, S. 2006. "Parental Influences on Children's on Values and Aspirations: Bridging Two Theories of Social Class and Socialization." *Sociological Perspectives* 49(1): 25-46.
- Hoffmann, J. P. 1993. "Exploring the direct effect and indirect family effects on adolescent drug use." *Journal of Drug Issues* 23(3): 535-557.
- Hoffmann, J. P. 2002. "The Community Context of Family Structure and Adolescent Drug Us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4(2): 314-330
- Hoffmann, J. P. and R. Johnson. 1998. "A National Portrait of Family Structure and Adolescent Drug Use." *Journal of Marriage & Family* 60(3): 633-645.
- Johnson, R. 1986. "Family structure and delinquency: General patterns and gender differences." *Criminology* 24: 65-84.
- Jennings, M. K. and R. G. Niemi. 1974. *The Political Character of Adolescence: The Influence of Families and School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ones, A. L. and S. N. Jolly. 2003. "Power in North Carolina Parents: Is There a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ucture and Adolescent Self-Efficacy?" *Sociation Today* 1(2)
- Johnes, R. K., J. E. Darroch, and S. T. Henshaw. 2002. "Patterns in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Women Obtaining Abortions in 2000-2001."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34(5): 226-235.

- Justice Policy Institute. 2000. *The Color of Justice: An Analysis of Juvenile Adult Court Transfers in California*. Washington, DC: Author.
- Kalmijn, M. 1994. "Mother's Occupational Status and Children's Schooling."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 257-275.
- Kaufman, P., X. Chen, S. P. Choy, S. A. Ruddy, A. K. Miller, J. K. Fleury, K. A. Chandler, M. R. Rand, P. Klaus, and M. G. Planty. 2000. *Indicators of School Crime and Safety 2000*. Washington, DC: U. S. Department of Education, U. S. Department of Justice.
- Kessler, S., D. J. Ashenden, R. W. Connell, and G. W. Dowsett. 1985. "Gender Relations in Secondary Schooling." *Sociology of Education* 66: 21-40.
- Kohn, M. L. 1969. *Class and Conformity: A Study in Value*. Homewood, IL: Dorsey Press.
- Kohn, M. L. 1977. *Men and Women of the Corporation*. New York: Basic Books.
- Kohn, M. L. and C. Schooler. 1983. *Work and Personality: An Inquiry into the Impact of Social Stratification*. Norwood, NJ: Ablex.
- Maclead, J. 1995. *Ain't No Makin' It: Aspirations and Attainment in a Low-Income Neighborhood*. Boulder, CO: Westview Press.
- Males, M. A. 2000. *Kids and Guns: How Politicians, Experts, and the Press Fabricate Fear of Youth*. Philadelphia: Common Courage Press.
- McLanahan, S. and G. Sandefur. 1994. *Growing Up with a Single Parent: What Hurts, What Help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cNeal, R. 1997. "Are Students Being Pulled out of High School? The Effect of Adolescent Employment on Dropping out." *Sociology of Education* 70: 206-220.
- McRobbie, A. 1991. *Feminism and Youth Culture: From Jackie to Just Seventeen*. Boston: Unwin Hyman.
- Mehan, H., L. Hubbard, and I. Villanueva. 1994. "Forming Academic Identities: Accommodation with Assimilation among Involuntary Minorities." *Anthropology and Education Quarterly* 25: 91-117.
- Mihalic, S. F. and D. Elliott. 1997. "Short- and Long-term Consequences of Adolescent Work." *Youth and Society*. 28(4): 464-498.
- Modell, J. 1989. *Into One's Own: From Youth to Adulthood in the United States, 1920-1975*.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arcel, T. L. and E. G. Menaghan. 1994. *Parents' Jobs and Children's Lives*. New York:

Aldine de Gruyter.

- Parsons, T. 1951. *The Social System*. Glencoe, IL: Free Press.
- Phelan, P., A. L. Davidson, and H. C. Yu. 1993. "Students' multiple Worlds: Navigating the Borders of Family, Peer and School Cultures." Pp. 52-88 in *Renegotiating Cultural diversity in American Schools*, edited by Phelan, P., A. L. Davidson, and H. C. Yu.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Pope, C. E. and H. N. Snyder. 2003. *Race as a Factor in Juvenile Arrests*. Washington, DC: U. 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Popenoe, D. 1993. "American Family Decline: 1960-1990): A Review and Appraisa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527-556.
- Rollins, B. C. and D. L. Thomas. 1979. "Parental support, Power, and control Technique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Pp. 317-364 in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1*, edited by W. Burr, R. Hill, R. I. Nye, and I. L. Reiss. New York: Free Press.
- Rose, L. C and A. M. Gallup. 2000. "The 32nd Annual Phi Delta Kappa/Gallup Poll of the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Public Schools." *Phi Delta Kappan* 82(1): 41-57.
- Rosen, L. 1985. "Family and delinquency: Structure or function?" *Criminology* 23: 553-73.
- Ross, C. E. and J. Mirowsky. 1999. "Parental Divorce, Life Course Disruption, and Adult Dep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1034-1045.
- Rueter, M. A. and R. D. Conger. 1995. "Interaction Style, Problem-Solving Behavior, and Family Problem-Solving Effectiveness." *Child Development* 66: 98-115.
- Sawhill, I. V. 1998. *Teen Pregnancy Prevention: Welfare Reform's Missing Component*. Washington, DC: Brookings.
- Schneider, B. and D. Stevenson. 1999. *The Ambitious Generation: America's Teenagers Motivated but Directionles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Sebald, H. 1968. *Adolescence: A Sociological Analysis*. New York: Appleton.
- Shuman, A. 1986. *Storytelling Rights: The Uses of Oral and Written Texts by Urban Adolescent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mons, R. L. and C. Johnson. 1996. "Part III: Family Interaction." Pp. 78-80 in *Understanding the Differences between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edited by R. Simons. Thousand Oaks, CA: Sage.
- Smetana, Judith G., Nicole Campione-Barr, and Aaron Metzger. 2006. "Adolescent

- Development in Interpersonal and Societal Contex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7:255-84.
- Smith, T. E. 1983. "Parental Influence: A Review of the Evidence of Influence and a Theoretical Model of the Parental Influence Process." Pp. 13-45 in *Research in Sociology of Education and Socialization* 4, edited by A. Kerkhoff. Greenwich, CT: JAI Press.
- Starrels, M. E. and K. E. Holm. 2000. "Adolescents' Plans for Family Formation: Is Parental Socialization Importa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416-429.
- Steinberg, Laurence and Amanda Sheffield Morris. 2001. "Adolescent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83-110.
- Strom, K. J. 2000. "Profile of State Prisoners under Age 18, 1985-1997."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Special Report (NCJ 176989). Washington, DC: U. S. Department of Justice.
- Suh, T., C. G. Schutz, and C. E. Johanson. 1996. "Family structure and initiating non-medical drug use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Substance Abuse* 5: 21-36.
- Sui-Chu, E. H. and J. D. Willms. 1996.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on Eight-Grade Achievement." *Sociology of Education* 69:136-141.
- Swell, W. H. and V. P. Shah. 1968. "Parents' Educational Aspiration and Achievem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3: 191-209.
- Swell, W. H., A. O. Haller, and A. Portes. 1969. "The Educational and Early Occupational Attainment Proc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4: 82-91.
- Snyder, H. N. and M. Sickmund. 1999.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1999 National Report*. Washington, DC: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Terry, E. and J. Manlove. 2000. *Trends in Sexual Activity and Contraceptive use among Teens*. Washington, DC: National Campaign to Prevent Teen Pregnancy.
- Troll, L. and V. L. Bengtson. 1979. "Generation in the Family." Pp 127-161 in *Theories about Family 1*, edited by W. Burr, R. Hill, I. Reiss and I. Nye. New York: Free Press.
-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0. *Youth Violence: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Rockville, MD: Author.
- Valenzuela, A. 1999. *Subtractive Schooling: U.S.-Mexican Youth and the Politics of*

- Caring.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Van Voorhis, P., F. T. Cullen, R. A. Mathers, and C. C. Garner. 1988. "The impact of family structure and quality on delinquency: A comparative assessment of structural and functional factors." *Criminology* 26:235-61.
- Videon, T. M. 2002.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and Parental Adolescent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4: 489-503.
- Wallerstein, J., J. M. Lewis, and S. Blakeslee. 2000. *The Unexpected Legacy of Divorce: A 25 Year Landmark Study*. New York: Hyperon.
- Warren, J. R., P. C. LePore, and R. D. Mare. 2000. "Employment during High School: Consequences for Students' Grades in Academic Courses." *American Education Research Journal* 37(4): 943-969.
- Webster, P. S., T. L. Orbuch, and J. S. House. 1995. "Effects of Childhood Family Background on Adult Marital Quality and Perceived Stabil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1: 404-432.
- Wells, L. E. and J. H. Rankin. 1986. "The broken homes model of delinquency: Analytic issu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3: 68-93.
- Wells, L. E. and J. H. Rankin. 1991. "Families and delinquency: A meta-analysis of the impact of broken homes." *Social Problems* 38: 71-93.
- Wills, P. E. 1981. *Learning to Labor: How Working Class Kids Get Working Class Job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Wolfer, L. T. and P. Moen. 1996. "Staying in School: Maternal Employment and the Timing of Black and White Daughters' School Exit." *Journal of Family Issues* 17: 540-560.
- Words, M., T. C. Bynum, and C. J. Corley. 1994. "Looking up Youth: The Impact of Race on Detention Decis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1(2): 149-165.
- Wulff, H. 1988. *Twenty Girls: Growing up, Ethnicity and Excitement in a South London Microculture*. Stockholm: University of Stockholm.
- Youniss, J. and J. Smollar. 1985. *Adolescent Relations with Mothers, Fathers, and Friend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Zullig, K. J., R.F., E.Huebner, and J.. Drane. 2005. "Associations among Family Structure, Demographics, and Adolescent Perceive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Issue* 14(2): 195-206.

부 록

1. 조사의 개요
2. 단순집계표
3. 질문지

1. 조사의 개요

본 미국 청소년 사회화 조사는 미국내 전문 리서치 회사(IRS)에서 위임하여 조사되었다. IRS는 전국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 조사 대상자가 200만명 이상인 대규모 조사그룹이다. 관리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67%, 남성이 33%이며, 연간소득별 구성을 보면, 10만달러 이상이 10%, 7만 5천~9만 9900달러가 10%, 5만~74만 9900달러가 19%, 3만 5천~4만 9900달러가 17%, 3만 5천달러 이하는 44%이다. 연령별로는 18~24세가 15%, 25~34세가 25%, 35~44세가 23%, 45~54세가 20%, 55세 이상이 17%로 미국 국세조사 규모와 큰 차이가 없는 수치이다. 조사 회사에서는 인터넷 참가자의 생년월일, 결혼유무, 자녀의 수, 자녀의 생년월일, 출산예정일, 인종, 언어, 직업, 교육, 주택 우편번호, 지역, 주택 보유 여부, 애완동물 유무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체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참가자 약 10,000명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조사였다. 당초 다른 비교국가와 동일한 조사 조건을 위해 오프라인 조사를 시도하였으나 학교조사를 위한 미국내 절차가 까다로와 기간내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미국의 조사 대상자의 전체 표본 수는 1,875명이며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853명으로 전체의 45.5%이고, 여학생은 1,022명으로 전체의 54.5%를 차지하여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년도 별로는 1986~1988년생이 177명으로 9.4%, 1989년생이 468명(25.0%), 1990년생 462명(24.6%), 1991년생 401명(21.4%), 1992~1994년생 367명(19.6%)의 분포를 보였다.

미국 조사는 전국조사로서, 대도시(교외부근 포함)747명(39.8%), 중·소도시 905명(48.3%), 읍·면 지역 223명 (11.9%)의 지역분포로 조사되었다.

2. 단순집계표

<문 6> 당신의 부모님은 다음의 가시노동에 각각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어머니가 전부 한다	어머니가 주로 한다	어머니, 아버지가 각각 반반씩 한다	아버지가 주로 한다	아버지가 전부 한다	부모님 이외의 다른 사람이 주로 한다
1) 식사준비	30.5	42.3	14.0	7.8	2.2	3.1
2) 설거지	25.8	34.5	18.9	6.2	1.8	12.8
3) 청소	26.1	43.4	18.4	3.7	1.4	7.0
4) 세탁	40.2	34.9	12.9	4.8	2.5	4.6

<문 7> 당신의 부모님께서는 서로 의견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양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님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서로의 입장을 듣고 냉정히 이야기한다	서로 감정적으로 대한다	서로 말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아버지의견에 따른다	아버지가 어머니의견에 따른다	어느 한 쪽이 상대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어느 한 쪽이 폭력을 행사한다
57.3	16.6	11.2	4.5	5.3	4.7	0.5

<문 8-1> 당신은 아래 사항을 아버지와 얼마나 함께 하십니까?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씩 한다	자주 한다
1) 스포츠 등의 야외활동 참여	17.8	19.4	43.6	19.2
2) 여행	15.5	18.5	43.8	22.1
3) 음악회/영화/박물관 관람 등	27.9	27.6	34.4	10.1
4) TV시청	10.8	14.0	38.0	37.1

<문 8-2> 당신은 아래 사항을 어머니와 얼마나 함께 하십니까?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씩 한다	자주 한다
1) 스포츠 등의 야외활동 참여	13.3	25.6	41.7	19.5
2) 여행	6.3	13.3	46.9	33.5
3) 음악회/영화/박물관 관람 등	15.0	22.3	42.5	20.2
4) TV시청	3.5	12.1	44.1	40.3

<문 9-1> 당신의 아버지는 아래의 상황에 대해 당신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양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아버지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관심 없다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1) 공부	6.0	4.0	16.6	73.4
2) 친구관계	7.6	8.7	33.3	50.3
3) 이성관계	8.0	10.4	30.9	50.7
4) 여가·취미생활	8.4	10.7	38.1	42.8
5) 진로·진학	6.9	5.4	19.8	67.9

<문 9-2> 당신의 어머니는 아래의 상황에 대해 당신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양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어머니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관심 없다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1) 공부	1.1	1.3	8.7	88.9
2) 친구관계	1.4	1.6	17.2	79.8
3) 이성관계	1.4	2.8	18.7	77.1
4) 여가·취미생활	1.4	4.6	26.5	67.5
5) 진로·진학	1.3	1.7	10.9	86.1

<문 10> 부모님이 당신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한디만 고르십시오. 양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님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공부해라	컴퓨터, 게임 그만해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	남에게 폐 끼치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마라	절약해라	부지런해라	기타
43.1	5.3	2.0	1.0	13.6	6.9	6.7	21.4

<문 11> 부모님이 당신에게 하는 말 중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무엇입니까? (한디만 고르십시오. 양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님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공부해라	컴퓨터, 게임 그만해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	남에게 폐 끼치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마라	절약해라	부지런해라	기타
17.5	18.2	33.4	4.1	3.9	9.8	3.8	9.2

<문 12-1> 다음 문항은 당신과 아버지와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sqrt{}$ 표 해주십시오. (양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님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15.5	15.6	35.6	33.3	
2)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10.0	12.2	33.7	44.1	
3) 나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16.7	22.9	39.3	21.1	
4) 나와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12.2	13.7	33.7	40.3	
5) 나와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14.9	17.8	34.4	32.8	
6)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들어준다	12.8	14.4	32.7	40.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7)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누구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다	13.6	12.5	24.6	49.3
8)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	14.2	12.9	30.5	42.3
9) 나의 능력이나 노력을 높게 평가해 준다	11.2	12.3	32.3	44.2
10) 나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해준다	9.8	10.2	34.5	45.5
11) 나에게 심한 욕설을 자주 하신다	65.3	18.3	11.6	4.7
12) 나를 심하게 때릴 때가 많다	81.8	8.7	6.6	2.9
13) 내가 잘못했을 때 체벌을 가한다	83.5	8.9	5.3	2.3
14) 내게 이유없이 화풀이를 한다	53.8	24.3	15.2	6.6
15) 내게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한다	66.6	16.6	11.4	5.5
16) 나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59.9	21.1	13.5	5.5
17) 나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강요한다	31.7	29.4	28.0	11.0
18)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	9.9	11.5	35.8	42.8
19) 나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자주 한다	56.2	26.3	12.5	5.0
20) 나는 아버지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11.3	16.8	39.1	32.7
21) 사춘기 신체변화가 있을 때 아버지와 상담했다	54.6	20.3	17.2	7.9
22) 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59.3	19.6	13.9	7.1
23) 아버지는 집안의 모든 일을 나에게 알리고 상의한다	18.6	20.7	37.4	23.3
24) 성격문제에 대해서 아버지와 상의한다	14.4	15.8	33.7	36.1
25) 교우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와 상의한다	22.0	26.3	32.4	19.2
26) 이성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와 상의한다	30.6	28.0	28.0	13.4
27) 선생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와 상의한다	22.0	20.5	31.1	26.4
28) 아버지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다	20.8	24.5	38.0	16.6
29)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신다	15.0	14.3	29.6	41.2

<문 12-2> 다음 문항은 당신과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주십시오. (양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어머니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2.6	6.8	33.3	57.4
2)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2.4	5.7	35.3	56.6
3) 나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3.6	10.9	39.7	45.8
4) 나와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1.9	4.5	30.2	63.4
5) 나와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2.3	5.6	29.5	62.6
6)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들어준다	2.1	3.9	28.4	65.6
7)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누구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다	2.5	3.4	19.7	74.3
8)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	2.8	4.5	23.9	68.8
9) 나의 능력이나 노력을 높게 평가해 준다	2.0	4.7	29.2	64.1
10) 나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해준다	1.6	3.0	29.5	65.9
11) 나에게 심한 욕설을 자주 하신다	70.6	17.6	8.7	3.1
12) 나를 심하게 때릴 때가 많다	86.3	6.3	4.5	3.0
13) 내가 잘못했을 때 처벌을 가한다	84.6	7.4	5.1	2.9
14) 내게 이유없이 화풀이를 한다	55.7	26.2	13.3	4.8
15) 내게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한다	73.8	15.5	7.3	3.4
16) 나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62.6	22.1	11.3	4.0
17) 나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강요한다	26.7	30.4	31.4	11.5
18)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	2.1	6.9	34.6	56.4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9) 나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자주 한다	54.1	27.0	14.3	4.6
20) 나는 아버지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3.5	8.7	35.4	52.4
21) 사춘기 신체변화가 있을 때 아버지와 상담했다	19.1	18.5	26.5	35.8
22) 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27.6	21.3	24.2	27.0
23) 아버지는 집안의 모든 일을 나에게 알리고 상의한다	4.6	12.1	39.9	43.5
24) 성적문제에 대해서 아버지와 상의한다	2.3	5.4	27.5	64.8
25) 교우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와 상의한다	4.9	9.3	34.5	51.3
26) 이성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와 상의한다	10.1	15.9	32.1	41.9
27) 선생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와 상의한다	4.2	8.1	28.5	59.2
28) 아버지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다	12.5	23.5	40.2	23.9
29)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신다	2.5	5.4	21.8	70.4

<문 13-1> 다음 문항은 당신과 아버지와의 갈등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아버지
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헤어스타일이나 외모치장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55.4	20.7	17.6	6.2
2) 나의 용돈관리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36.1	23.9	30.7	9.3
3) 나의 친구관계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49.8	29.0	16.0	5.1
4) 나의 이성교제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50.1	27.3	16.5	6.1
5) 나의 학원수강 및 학습시간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40.7	25.7	23.9	9.7
6) 나의 외출 및 귀가시간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29.2	19.7	34.0	17.1
7) 나는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42.8	28.2	18.5	10.4
8) 나는 성적 때문에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59.1	20.5	14.4	6.1
9) 나는 친구관계 때문에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61.5	23.7	10.9	3.8
10) 나는 이성교제 때문에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65.7	20.9	9.6	3.8
11) 나는 성격, 습관, 태도 때문에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40.2	22.5	24.8	12.6
12) 나는 행동때문에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46.2	24.9	19.7	9.3
13) 아버지와 부딪힐 때 목욕히 봐주신다	20.4	21.2	35.5	22.9
14) 아버지와 부딪혔을 때 일방적으로 야단을 맞는다	41.8	26.0	23.4	8.9
15) 아버지와 부딪혔을 때 내가 이긴다	44.7	38.6	12.5	4.2
16) 아버지와 부딪혔을 때 말로 서로 잘 풀어간다	24.1	31.3	31.4	13.2
17) 아버지와 부딪혔을 때 서로 말을 하지 않거나 피한다	43.0	32.0	17.5	7.5

<문 13-2> 다음 문항은 당신과 어머니와의 갈등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어머니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헤어스타일이나 외모치장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39.9	24.5	28.6	7.0
2) 나의 용돈관리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27.5	23.8	36.9	11.8
3) 나의 친구관계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41.7	31.3	22.0	5.0
4) 나의 이성교제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44.1	29.7	20.3	5.9
5) 나의 학원수강 및 학습시간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28.4	22.7	34.1	14.8
6) 나의 외출 및 귀가시간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18.9	19.3	39.4	22.3
7) 나는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40.9	30.6	20.9	7.6
8) 나는 성적 때문에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49.7	22.7	19.4	8.3
9) 나는 친구관계 때문에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56.8	25.8	13.4	3.9
10) 나는 이성교제 때문에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61.0	24.5	10.7	3.8
11) 나는 성격, 습관, 태도 때문에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37.8	24.0	27.5	10.8
12) 나는 행동때문에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41.0	27.1	22.5	9.4
13) 아버지와 부딪힐 때 목욕히 봐주신다	10.8	22.4	39.6	27.2
14) 아버지와 부딪혔을 때 일방적으로 야단을 맞는다	44.5	31.3	19.0	5.2
15) 아버지와 부딪혔을 때 내가 이긴다	40.4	40.7	15.8	3.1
16) 아버지와 부딪혔을 때 말로 서로 잘 풀어간다	14.4	28.9	38.7	18.0
17) 아버지와 부딪혔을 때 서로 말을 하지 않거나 피한다	48.9	32.5	13.8	4.8

<문 14-1> 다음 문항은 당신에 대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기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주십시오.
(양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아버지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학업성취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5.8	2.7	17.8
2) 나의 장래 직업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5.5	3.2	19.4
3) 내가 사회적을 성공하기를 바란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8.4	11.3	35.9
4) 내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란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8.4	33.7	26.5
5) 내 일을 내가 알아서 하기를 원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3	3.8	22.2
6) 내가 인간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5.9	3.6	17.9
7) 내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5.7	3.3	14.5
8)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7.2	4.9	16.4
9) 좋은 집으로 시집(장가)가기를 원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3.7	19.2	32.8

<문 14-2> 다음 문항은 당신에 대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기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주십시오.
(양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어머니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학업성취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3	1.5	10.8
2) 나의 장래 직업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2	2.4	18.2
3) 내가 사회적을 성공하기를 바란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8	9.1	34.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4) 내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란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30.6	25.8	18.6
5) 내 일을 내가 알아서 하기를 원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2	15.7	80.9
6) 내가 인간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4	13.8	83.7
7) 내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3	8.5	89.0
8)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4	10.0	86.4
9) 좋은 집으로 시집(장가)가기를 원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7.4	32.3	40.3

<문 15> 문14의 1~9 항목 중 아버지/어머니가 당신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대는 무엇인지 2가지를 순서대로 기입해 주십시오.

	나의 학업성취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나의 장래 직업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란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란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인간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좋은 집으로 시집(장가)가기를 원한다	무응답
아버지 1순위	33.9	8.9	0.8	0.6	11.5	4.5	18.7	18.1	1.0	2.2
아버지 1+2순위	43.6	28.2	2.6	1.9	28.4	12.1	34.5	41.3	3.0	4.3
어머니 1순위	25.6	5.0	0.8	0.6	9.5	3.4	26.5	27.0	1.3	0.2
어머니 1+2순위	35.6	18.0	2.5	1.3	23.9	11.2	44.7	57.3	5.2	0.5

<문 16> 다음 문항을 자세히 읽어보고 해당하는 번호에 √ 표 해 주십시오.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이상
1) 당신은 어디까지 교육받기를 원합니까?	0.4	5.1	12.8	44.6	37.1
2) 부모님은 당신이 어디까지 교육받기를 원합니까?	0.1	2.7	11.4	50.4	35.4

<문 17>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 표 해 주십시오.

	예	아니오
1) 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69.6	30.4
2) 나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	84.6	15.4
3) 나는 아버지가 좋다	86.7	13.3
4) 나는 어머니가 좋다	94.9	5.1

<문 18> 당신의 삶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가지를 선택하여 순위대로 써주십시오. 없는 경우에는 1 순위_____에 11번을 써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	선생님	친구	교제하고 있는 이성 친구	사회적인 인물, 위인, 정치가 등	없다	기타	무응답
1순위	25.7	50.3	2.7	1.5	2.0	0.8	0.8	2.3	8.6	2.2	0.7	1.7	1.6
1+2순위	56.7	76.7	8.1	4.9	7.4	3.6	6.9	19.2	5.5	2.4	4.5	4.0	0.1

<문 19> 다음은 당신과 부모님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하지 않는다	가끔 하는 편이다	자주 한다
1) 아버지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36.0	22.3	26.8	14.9
2) 어머니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16.1	17.4	37.1	29.4
3) 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17.0	26.0	41.4	15.6

<문 20> 당신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부모님의 권유로 (또는 영향으로)	친구 및 주위의 권유로	동아리 또는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종교단체 활동을 통해서	봉사점수를 얻기 위해	기타
41.4	7.0	2.4	13.2	12.1	11.2	12.7

<문 21> 아래 문항을 자세히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결혼 전까지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도 좋다	21.8	36.3	33.8	8.1
2) 내가 공부를 다 마칠 때까지 나의 생활비(학비 포함)는 전적으로 부모님이 책임져야 한다	9.4	26.8	46.2	17.5

<문 22> 당신은 부모님으로부터 언제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등 최종학업을 마친 후	취업한 이후	결혼한 이후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계속 의존해도 좋다	기타
1)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할 시기	0.8	20.6	40.0	31.3	3.1	2.0	2.2
2) 부모님 집으로부터 나와 혼자 살아야 할 시기	0.2	16.0	36.9	20.6	13.2	8.5	4.6

<문 23> 다음의 보기 중 당신의 고민거리는 무엇입니까? (가장 심각한 고민거리 2가지를 선택해서 순서대로 번호를 써주세요. 특별한 고민이 없는 경우에는 9번에 체크하고, 기타를 선택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자세히 적어주십시오.)

	공부와 성적	친구관계	진로문제 (진학/취업)	가족관계 (가족문제)	외모	성격	이성교제	집안의 경제사정	특별한 고민거리 없음	기타	무응답
1순위	41.7	12.1	7.8	4.5	6.3	1.0	6.7	5.6	12.3	2.0	0.0
1+2순위	56.9	30.1	20.7	11.0	16.3	3.0	14.1	14.5	26.8	6.2	0.1

<문 24> 당신은 누구와 고민을 상담하십니까? (가장 자주 고민을 상담하는 두 사람을 선택해서 번호를 써주세요. 누구와도 상담하지 않는 경우 1순위에 1번을 기입해주시시오. 기타를 선택한 경우에는 () 안에 누구인지 자세히 적어주시시오.)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친구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	선생님	상담전문기관	학교상담 선생님	누구하고도 상담하지 않는다	기타	무응답
1순위	14.6	50.5	4.6	21.7	0.8	1.5	0.5	0.6	0.2	1.1	2.6	1.0	0.3
1+2순위	37.9	77.1	13.8	41.2	2.0	5.8	2.5	2.4	0.9	5.2	8.2	2.1	0.7

<문 25> 당신은 다음의 활동을 하루(평일)에 얼마나 하십니까?

1) 폰메일	1. 보내는 문자
	2. 받는 문자
2) 비디오·컴퓨터 게임 또는 인터넷 사용	
3) TV시청	
4) 학습시간(혼자 공부하는 시간)	
5) 학원 및 과외공부	

<문 26> 당신은 학교나 학원을 마치고 주로 언제쯤 집으로 돌아옵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오후 4시 이전	오후 5시경	오후 6시경	오후 7시경	오후 8시경	오후 9시경	오후 10시경	오후 11시경	밤 12시 이후	일정치 않다
49.9	18.0	11.3	3.6	1.8	1.7	0.7	0.4	0.3	12.3

<문 27> 당신이 집에 돌아온 후, 자기 전까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 일이 가장 많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하여 √표 해 주십시오. 양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님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혼자	형제자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모두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와서 그냥 자는 일이 많다
12.5	12.6	4.7	31.0	0.2	1.3	35.9	1.8

<문 28> 당신은 아래의 일 또는 활동을 얼마나 자주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 표 해 주십시오.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하지 않는다	가끔씩 한다	자주 한다
1) 집안 일(청소, 요리, 세탁 등)	7.6	33.3	44.7	14.3
2) 취미/문화(미술관 관람·음악회·영화관람)	1.7	18.2	59.1	20.9
3) 스포츠 활동	18.0	24.6	28.0	29.5
4) 여행이나 캠프	15.2	39.0	39.4	6.4

<문 29> 당신이 장차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기지를 선택하
시고 순서대로 번호를 써주세요.

	하고 싶은 일	재미있는 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일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일	귀중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일	안정적인 직업(공무원)	무응답
1순위	63.9	11.6	2.5	1.7	3.3	12.5	0.5	3.8	0.2
1+2순위	77.4	39.4	7.6	6.6	10.7	41.1	1.7	14.7	0.4

<문 30>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 표 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에게 적합한 직업은 나보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더 잘 아신다	34.1	41.0	20.9	4.0
2) 나의 진로는 내가 선택하며 그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있다	2.5	8.1	41.8	47.7
3) 부모님은 내가 당신의 직업을 이어 받기를 원한다	76.7	16.6	5.1	1.6
4) 나는 부모님의 직업을 이어 받고 싶다	64.0	22.2	10.8	3.0

<문 31> 당신은 지난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43.0	57.0

<문 31-1> 당신이 했거나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는 어떤 것입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모두 √ 표 해 주십시오)

전단지 돌리기 (스티커 부착)	패스트 푸드점	24시 편의점	상점에서 물건팔기	신문배달	주유소	사무보조	건설현장 일	이벤트 행사장	음식점(피자, 치킨, 분식점 등)에서 서빙	음식점(피자, 치킨, 분식점 등)에서 오토바이 배달	베이비 시터
1.7	18.1	3.5	6.2	2.4	0.7	9.3	2.1	1.6	10.4	1.2	17.8

<문 31-2> 당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선택하고 순위대로 써 주십시오.

용돈을 벌기 위해서	친구들이 하나까	부모님의 권유로	집안형편이 어려워서	일반적인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	장래의 직업과 관련한 경험을 쌓기 위해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기타
1순위 72.8	0.4	4.4	2.0	1.2	4.4	7.2	7.7
1+2순위 88.1	7.8	17.8	6.2	6.1	15.7	40.7	16.9

<문 32> 여러분 나이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경험이다	한 두번 정도는 해도 좋다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38.9	37.3	3.9	4.4	15.6

<문 33> 아래 상황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표 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가사를 돌봐야 한다	49.1	28.9	18.1	3.9
2) 사회적 성공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중요하다	38.6	36.8	20.0	4.6
3) 남자는 집안의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	28.5	25.0	34.7	11.8
4) 여자는 암전하고 순종적이어야 한다	52.7	28.8	15.2	3.3
5) 여자에게는 사회적 성공보다 행복한 결혼이 더 중요하다	17.3	24.9	39.5	18.2
6) 자녀교육은 어머니의 책임이 더 크다	24.2	26.7	36.5	12.6
7) 남자도 가사에 참여해야 한다	2.4	8.2	41.6	47.8
8) 여자들도 경제적인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4.3	13.7	49.3	32.6
9) 사회적 성공은 여자에게도 중요하다	3.8	13.9	54.6	27.8
10) 남자가 늘 주도적일 필요는 없다	7.7	19.8	42.2	30.3

<문 34> 아래 상황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표 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미국에서는 재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대접을 받는다	50.8	32.1	11.7	5.4
2) 미국사회는 능력이 중요한 사회이다	4.7	11.1	50.9	33.3
3) 미국사회는 학력(학벌)이 중요한 사회이다	3.7	12.9	52.7	30.7
4) 미국사회는 인맥(연줄)이 중요한 사회이다	6.8	27.8	49.0	16.4
5) 미국사회는 혈연이 중요한 사회이다	22.6	35.1	31.3	11.0
6) 미국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이다	20.8	33.5	38.6	7.1
7) 나라가 발전해야 개인도 발전한다	6.7	21.5	53.6	18.2
8)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의 이익은 희생되어도 좋다	16.3	40.5	37.1	6.1

<문 35> 아래 시황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표 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0.6	2.5	23.2	73.8
2)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0.7	2.8	25.7	70.9
3)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0.9	3.5	27.7	67.9
4) 나는 내가 내린 결정을 신뢰할 수 있다	0.9	3.3	31.3	64.5
5)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1.5	10.5	51.7	36.3
6)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주관하며 살고 있다	2.1	12.1	50.2	35.6
7)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3.4	30.9	29.3	6.4
8)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9.7	27.4	19.5	3.3
9)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42.7	29.2	23.7	4.4
10) 나는 나 자신이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70.1	18.0	9.5	2.5
11) 주위사람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71.0	15.4	10.5	3.1

3. 질문지

A Study of Youth Development and Family Relations

Dear Students:

We invite you to participate in a research study being conducted by investigators from The University of Iowa.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and compare the changing relationships between teenagers and their families from five different countries.

If you agree to participate, we would like you to read the questions that deal with your relationship with your parents and other members of your family and your attitudes about related matters. For each question, you are asked to choose appropriate answers that apply to you most closely. You are free to skip any questions that you prefer not to answer. It will take approximately 30 minutes to finish the whole questionnaire.

Taking part in this research is completely voluntary. If you do not wish to participate, simply return the questionnaire to one of us. If you are willing to participate, we will provide you with a \$10 gift certificate in appreciation of your time and cooperation. We will also make small contribution to your school. To claim your gift certificate, you only need to inform us that you have attempted to answer the questions sincerely when you return the finished questionnaire to us.

Your answers will be handled electronically and purely for statistical analysis. We will not collect your name or any identifying information about you, except your age and gender. It will not be possible for anyone to link you to your responses. Your anonymity is further assured by the fact that we will collect similar data from one hundred other student with the same age and gender as yours.

If you have questions about the rights of research subjects, please contact the

Human Subjects Office, 300 College of Medicine Administration Building, The
University of Iowa, Iowa City, IA 52242, (319) 335-6564, or e-mail
irb@uiowa.edu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nsideration of this research study.

Jae-On Kim
Professor of Sociology
University of Iowa

SQ1 What is your gender?

- ☐ (1) Female ☐ (2) Male

SQ2 In what year were you born? 19____

SQ3 What type of school do you attend?

- ☐ (1) Junior High or Middle School (public)
☐ (2) Junior High or Middle School (private)
☐ (3) High School (public)
☐ (4) High School (private)

SQ4 What grade are you in?

- ☐ (1) 9th grade ☐ (2) 10th grade
☐ (3) 11th grade ☐ (4) 12th grade

SQ5 What type of city or town do you live in right now?

- ☐ (1) In a large city (over 250,000)
☐ (2) In a suburb near a large city
☐ (3) In a medium size city (50,000-250,000)
☐ (4) In a small city or town (under 50,000)
☐ (5) On a farm
☐ (6) In the country but not on a farm

SQ6 What is your academic standing in your class?

- ☐ (1) Within the top 20%
☐ (2) Between the 21st and 40th percentile
☐ (3) Between the 41st and 60th percentile
☐ (4) Between the 61st and 80th percentile
☐ (5) Within the bottom 20%

SQ7 What race do you consider yourself?

- ☐ (1) White
☐ (2) Black or African American
☐ (3) Spanish or Latino
☐ (4) American Indian or Native American
☐ (5) Asian or Pacific Islander
☐ (6) Other

※ The following questions deal with your parents and your relationship with them.

Q1 Who are you living with in your home right now? (Check all the choices that apply to you. Additionally, write the number of siblings and relatives, etc. that you have.)

- | | |
|---|--|
| ☐ (1) Biological father | ☐ (2) Biological mother |
| ☐ (3) Stepfather | ☐ (4) Stepmother |
| ☐ (5) Grandfather (father's side) | |
| ☐ (6) Grandmother (father's side) | |
| ☐ (7) Grandfather (mother's side) | |
| ☐ (8) Grandmother (mother's side) | |
| ☐ (9) Brothers (how many? <input type="text"/>) | |
| ☐ (10) Sisters (how many? <input type="text"/>) | |
| ☐ (11) Relatives (how many? <input type="text"/>) | |
| ☐ (12) Others (how many? <input type="text"/>) | |

Q2-1 What is the highest education level that your father has attained?
(If you are living with your stepfather, provide a response about your stepfather.)

- ☐ (1) No formal education
- ☐ (2) Incomplete elementary school
- ☐ (3) Complete elementary school
- ☐ (4) Incomplete middle school
- ☐ (5) Complete middle school
- ☐ (6) Incomplete high school
- ☐ (7) Complete high school
- ☐ (8) Some university-level education, w/out a degree
- ☐ (9) University-level education, with a degree
- ☐ (10) Graduate school or higher
- ☐ (11) I don't know

Q2-2 What is the highest education level that your mother has attained?
(If you are living with your stepmother, provide a response about your stepmother.)

- ☐ (1) No formal education
- ☐ (2) Incomplete elementary school
- ☐ (3) Complete elementary school
- ☐ (4) Incomplete middle school

- __(5) Complete middle school
- __(6) Incomplete high school
- __(7) Complete high school
- __(8) Some university-level education, w/out a degree
- __(9) University-level education, with a degree
- __(10) Graduate school or higher
- __(11) I don't know

Q3 Is your father currently employed? (If you are living with your stepfather, provide a response about your stepfather.)

- (1) Yes (go to Q3-1) (2) No (go to Q4)

Q3-1 What is your father's occupation? Please write the specific job title within the parentheses.

- __(1) Professor ()
- __(2) Teacher ()
- __(3) Company employee ()
- __(4) Government employee ()
- __(5) Businessman ()
- __(6) Medical professional ()
- __(7) Researcher ()
- __(8) Police officer ()
- __(10) Clergy member ()
- __(9) Military service ()
- __(11) Legal professional ()
- __(12) Broadcaster ()
- __(13) Artist ()
- __(14) Athlete ()
- __(15) Entertainer ()
- __(16) Technician/Laborer ()
- __(17) Self-employed ()
- __(18) Other ()

Q3-2 Is your father employed part-time or full-time?

- (1) Part-time (2) Full-time

Q4 Is your mother currently employed? (If you are living with your stepmother, provide a response about your stepmother.)

- (1) Yes (go to Q4-1) (2) No (go to Q5)

Q4-1 What is your mother's occupation? Check the occupation and indicate specifically inside the parenthesis.

- __ (1) Professor ()
- __ (2) Teacher ()
- __ (3) Company employee ()
- __ (4) Government employee ()
- __ (5) Businessman ()
- __ (6) Medical professional ()
- __ (7) Researcher ()
- __ (8) Police officer ()
- __ (9) Military service ()
- __ (10) Clergy member ()
- __ (9) Military service ()
- __ (11) Legal professional ()
- __ (12) Broadcaster ()
- __ (13) Artist ()
- __ (14) Athlete ()
- __ (15) Entertainer ()
- __ (16) Technician/Laborer ()
- __ (17) Self-employed ()
- __ (18) Other ()

Q4-2 Is your mother employed part-time or full-time?

- (1) Part-time (2) Full-time

Q5 How do your parents contribute financially to your household? (If you are living with your stepparents, give a response about your stepparents.)

- (1) Mother earns all (2) Mother earns more than father
- (3) Mother and Father earn equally
- (4) Father earns more (5) Father earns all
- (6) I don't know

Q6 Who usually does the housework? (If you are living with your stepparents, give responses about your stepparents.)

	All by mother	Mostly by mother	Mother and father equally	Mostl y by father	All by father	Mostly by someone else
(1) Cooking	①	②	③	④	⑤	⑥
(2)Washing dishes	①	②	③	④	⑤	⑥
(3) Cleaning	①	②	③	④	⑤	⑥
(4) Laundry	①	②	③	④	⑤	⑥

Q7 How do your parents usually solve their differences in opinion?

- __(1) They calmly talk it over with each other
- __(2) They become emotional
- __(3) They do not communicate with each other
- __(4) Mother usually follows father's opinion
- __(5) Father usually follows mother's opinion
- __(6) One side ignores the other
- __(7) It usually ends up in physical abuse

Q8 How often do you spend time with your parents in the following activities?

	With Father				With Mother			
	Never	Barely	Sometimes	Often	Never	Barely	Sometimes	Often
(1) Outdoor activities (e.g. sports)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Travel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Attending concerts or going to museums or the movies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Watching TV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Q9 Please indicate how much you feel your parents care about the following items in your life.

	Father				Mother			
	Doesn't care at all	Doesn't care much	Cares somewh at	Cares strongly	Doesn't care at all	Doesn't care much	Cares somewhat	Cares strongly
(1) Grades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Friendships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Boyfriends / Girlfriends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Hobbies and leisur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Entering college or my future career path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Q10 Read each of the following and check the one that your parents tell you the most often. (Please check only one answer. If you are living with your stepparents, provide the answer that applies to your stepparents.)

- __ (1) “Study hard”
- __ (2) “Stop playing video games”
- __ (3)
- __ (4) “Do not bother others”
- __ (5) “Do not lie”
- __ (6) “Save money”
- __ (7) “Be diligent”
- __ (8) Other ()

Q11 Of the following statements, please check the one that you least want to hear from your parents. (Please check only one answer. If you are living with your stepparents, provide the answer that applies to your stepparents.)

- __ (1) “Study hard”
- __ (2) “Stop playing video games”

	Father				Mother			
	Strongly Disagree	Slightly Disagree	Slightly Agree	Strongly Agree	Strongly Disagree	Slightly Disagree	Slightly Agree	Strongly Agree
(14) Gets mad at me without good reaso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5) Makes insulting remarks to m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6) Does not easily forgive my mistakes and misbehavio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7) Imposes his/her opinions and thoughts on m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8) I feel happy when I am with him/he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9) I often lie to him/he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0) I feel grateful to him/he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1) I have consulted with him/her about physical changes I experienced during puberty.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2) I have consulted with him/her about sexual matters.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3) He/She includes me in important family-related decisions.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4) I discuss school and my grades with him/he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5) I discuss my relationships with friends with him/he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6) I discuss my relationships with boyfriends/girlfriends with him/he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7) I talk with him/her when I have problems with teachers at school.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8) I have pointed out his/her mistakes.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9) He/She is willing to sacrifice everything for m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Q13 These are some of the issues that could occur between you and your parents. Check the number that best fits you. (If you are living with your stepparents, provide the answer that applies to your stepparents.)

	Father				Mother			
	Strongly Disagree	Slightly Disagree	Slightly Agree	Strongly Agree	Strongly Disagree	Slightly Disagree	Slightly Agree	Strongly Agree
(1) He/She tries to control my hair-style and clothing.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He/She tries to control my spending habits.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He/She tries to control my relationships with friends.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He/She tries to control my relationships with boyfriends/girlfriends.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He/She tries to control my studying at cram schools/institutes, including the amount of time I spend studying.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He/She tries to control my time management (e.g. going out, curfew).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7) I often clash/argue with him/he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8) I often clash/argue with him/her because of my grades.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9) I often clash/argue with him/her because of my relationships with friends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0) I often clash/argue with him/her because of my boyfriend/girlfriend.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1) I often clash/argue with him/her due to my personality and attitud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2) I often clash/argue with him/her due to my behavior in general.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3) He/She tries to remain calm and bear with me when we clash or have a disagreement.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4) He/She scolds me without hearing my side when we clash/argu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5) I usually prevail over him/her when we clash/argu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6) I communicate well with him/her when we clash/argu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7) He/She tries to avoid discussion when we clash/argu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Q14 The following questions ask you about the expectations your parents have of you. Read the questions carefully and answer accordingly. (If you are living with your stepparents, provide the answer that applies to your stepparents.)

	Father				Mother			
	Strongly Disagree	Slightly Disagree	Slightly Agree	Strongly Agree	Strongly Disagree	Slightly Disagree	Slightly Agree	Strongly Agree
(1) It is important to him/her that I do well in school.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It is important to him/her that get a good job in the futur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It is important to him/her that I become successfully socially.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It is important to him/her that I go to a prestigious university.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It is important to him/her that I become a self-reliant perso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It is important to him/her that I become a mature perso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7) It is important to him/her that I am healthy.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8) It is important to him/her that I am happy.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9) It is important to him/her that I find a spouse with a good family background.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Q15 Which two of the choices from Q14 are most important to your father/mother? (Please enter a number in each answer box.)

	Father	Mother
First	No. _____	No. _____
Second	No. _____	No. _____

Q16 Please read the following questions carefully and answer accordingly.

	Middle school/ Junior high	High school	Communi- ty or Junior college	Univer- sity	Graduat e school or higher
(1) What is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you wish to attain?	①	②	③	④	⑤
(2) What is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your parents want you to attain?	①	②	③	④	⑤

Q17 Please read the following questions carefully and answer accordingly.

	Yes	No
(1) I admire my father and would like to follow his example.	①	②
(2) I admire my mother and would like to follow her example.	①	②
(3) I do not like my father.	①	②
(4) I do not like my mother.	①	②

* The next few questions ask about your current daily life.

Q18 Who has the **biggest impact** in your life? (Rank the highest two in order. If you do not have an answer, please write “11” in the first column.)

First highest: _____

Next highest: _____

- | | |
|--|-------------------------------------|
| (1) Father | (7) Teacher |
| (2) Mother | (8) Friends |
| (3) Siblings | (9) Boyfriend / Girlfriend |
| (4) Grandfather | (10) Someone I look up to |
| (5) Grandmother(famous historical figures, politicians, celebrities, etc.) | |
| (6) Other relatives | (11) None |
| | (12) Other () |

Q19 These are the questions about you and your parents' **volunteer work**. Read the questions carefully and check the numbers accordingly.

	Never	Rarely	Sometimes	Often
(1) My father is active in volunteer work.	①	②	③	④
(2) My mother is active in volunteer work.	①	②	③	④
(3) I am active in volunteer work.	①	②	③	④

Q20 If you are active in volunteer work, what is the biggest reason why you do it?

- ___(1) Because I want to
 ___(2) Because my parents want me to do
 ___(3) Because of friends' or others' advice
 ___(4) As part of a club activity
 ___(5) As part of a religious organization's activity
 ___(6) To get credit/points for my efforts
 ___(7) Other ()

Q21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Read each carefully and answer accordingly.

	Strongly Disagree	Slightly Disagree	Slightly Agree	Strongly Agree
(1) It's okay for people to be financially dependent on their parents until they get married.	①	②	③	④
(2) Parents should provide their children with tuition and living expenses until they graduate from college.	①	②	③	④

Q22-1 When do you feel that you have to become financially independent from your parents?

- __ (1) After middle school/junior high
 __ (2) After high school
 __ (3) After college or graduate school for as long as I want to
 __ (4) After I get a job
 __ (5) After marriage

- __ (6) I can continue to be dependent
 __ (7) Other ()

Q22-2 When do you feel that you have to move out of your parents' home?

- __ (1) After middle school/junior high
 __ (2) After high school
 __ (3) After college or graduate school for as long as I want to
 __ (4) After I get a job
 __ (5) After marriage
 __ (6) I can continue to be dependent
 __ (7) Other ()

Q23 What are your **biggest concerns/worries** right now? (Pick the two most pressing concerns and write their numbers in the blanks accordingly. If you do not currently have a particularly serious concern, write "9" in the first column, and if you picked 10, please describe the specific concern inside the parentheses.)

First concern: _____ Second concern: _____

- (1) Getting good grades
 (2) Friendships (3) Going on to a good university
 (4) Family relationships
 (5) Appearance
 (6) Personality
 (7) Boyfriend / Girlfriend
 (8) Family financial situation
 (9) Not overly concerned about anything
 (10) Other ()

Q24 **With whom** do you usually consult when you have problems/worries? (Rank the two that you consult with most often and spend the most time with. If you do not consult with anyone, please write "11" in the first column. If you picked "other," please indicate with whom you consult inside the parentheses.)

First: _____ Second: _____

Q28 How often do you engage in the following activities?

	Never	Rarely	Sometimes	Often
(1) Housework (e.g. cleaning, cooking, laundry)	①	②	③	④
(2) Leisure activities or hobbies (e.g. going to concerts, movies, or museums)	①	②	③	④
(3) Sports	①	②	③	④
(4) Travel or going to camps	①	②	③	④

Q29 What do you think will be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you when choosing a **job in the future**? (Please rank the two most important factors and write their numbers in order.)

First: _____ Second: _____

- (1) A job that I want to do (
- (2) A job that is interesting
- (3) A job that requires creativity
- (4) Job flexibility (Schedule/Time-wise)
- (5) Opportunities for valuable experiences
- (6) High wages
- (7) Fame or honor
- (8) Job stability

Q30 Please read the following questions carefully and answer accordingly.

	Strongly Disagree	Slightly Disagree	Slightly Agree	Strongly Agree
(1) My parents and teachers know what the best job for me is better than I do.	①	②	③	④
(2) I can decide my own future and I will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my decisions.	①	②	③	④
(3) My father/mother wants me to choose the same job that he/she has.	①	②	③	④
(4) I want to have the same job that one of my parents has.	①	②	③	④

Q31 Have you had a part-time job during the past year?

(1) Yes (Go to Q31-1)

(2) No (Go to Q32)

Q31-1 Where have you **worked part-time** in the past or where are you working currently? (Please **check all that apply** to you.)

___(1) Handing out brochures/Putting up flier

___(2) Fast-food restaurant

___(3) Convenience store

___(4) Shop assistant

___(5) Newspaper or magazine delivery

___(6) Gas station

___(7) Office helper/assistant

___(8) Construction site worker

___(9) Promotional event worker

___(10) Restaurant waiter/server

___(11) Food delivery (pizza, chicken, etc.)

___(12) Baby sitting (child care)

___(13) Other ()

Q31-2 Why do you have a **part-time job** right now? (Please rank the two most important reasons and write their numbers in order.)

First: _____ Second: _____

(1) To earn pocket money

(2) Because my friends also work

(3) Parents' suggestion

(4) To contribute to my household

(5) To experience society in general

(6) For work experience for my future career

(7) To have a sense of independence

(8) Other ()

Q32 What is your opinion about part-time work for young people of your age?

- (1) It is an invaluable experience.
- (2) Doing one or two part-time jobs is okay.
- (3) It is better to avoid working as much as possible.
- (4) People of our age should not do part-time jobs.
- (5) I have no opinion about this.

Q33 Please read the following questions carefully and answer accordingly.

	Strongly Disagree	Slightly Disagree	Slightly Agree	Strongly Agree
(1) Men should earn money out in the workforce while women should stay at home to take care of household affairs and housework.	①	②	③	④
(2) Social achievement is more important to men than women.	①	②	③	④
(3) Men are mainly responsible for household income.	①	②	③	④
(4) Women should usually agree with their husbands' opinions.	①	②	③	④
(5) A happy marriage is more important to women than social achievement.	①	②	③	④
(6) Women are mainly responsible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①	②	③	④
(7) Men should take part in household affairs and chores.	①	②	③	④
(8) Women are also responsible for household income.	①	②	③	④
(9) Social achievement is also important to women.	①	②	③	④
(10) Men do not necessarily have the upper hand in their family's decision-making process.	①	②	③	④

Q34 What is your take on the following statements? Please read each carefully and answer accordingly.

	Strongly Disagree	Slightly Disagree	Slightly Agree	Strongly Agree
(1) In America, everyone is treated equally regardless of how much money they make.	①	②	③	④
(2) In America, one's ability and talent are important for success in life.	①	②	③	④
(3) In America, one's educational attainment and place of study is important for success in life.	①	②	③	④
(4) In America, personal and social networks (e.g. graduates of the same school) are important for success in life.	①	②	③	④
(5) In America, one's bloodline and family background are important for success in life.	①	②	③	④
(6) Overall, people in America are usually treated fairly.	①	②	③	④
(7) Individuals improve when the nation improves.	①	②	③	④
(8) I can sacrifice my interests for the good of the nation.	①	②	③	④

Q35 Please read the following sentences carefully and answer accordingly.

	Strongly Disagree	Slightly Disagree	Slightly Agree	Strongly Agree
(1) I feel that I am a good person.	①	②	③	④
(2) I feel that I am a capable person.	①	②	③	④
(3) I feel that I am a valuable person.	①	②	③	④
(4) I can trust myself and take responsibility for my decisions.	①	②	③	④
(5) I believe I can handle my problems on my own.	①	②	③	④
(6) I feel that I am in charge of my life.	①	②	③	④
(7) I feel useless at times.	①	②	③	④
(8) I feel that I am a bad person at times.	①	②	③	④
(9) I feel that I am a failure at times.	①	②	③	④
(10) I believe that I am a trouble maker.	①	②	③	④
(11) People around me believe that I am a trouble maker.	①	②	③	④

2006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6-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IV - 조사개요보고서 / 이경상·김기현
 06-R01-1 청소년의 선호직업 및 직업가치 특성에 관한 연구 / 이경상·강영배
 06-R01-2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종단 분석 / 김기현·유성렬
 06-R01-3 청소년 비행 및 범죄 응답패턴에 대한 종단 분석 / 김기현·민수홍
 06-R02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I : 결과부분 측정 지표 검증 / 김신영·임지연·김상욱·박승호·유성렬·최지영
 06-R02-1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 조사 I : 청소년 발달 종합지표 / 김신영·임지연·김상욱·박승호·유성렬·최지영
 06-R03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 양계민·오승근·권두승·전명기·조대연
 06-R04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I -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 백혜정·길은배·윤인진·이영란
 06-R05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I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 최창욱·박영균·김진호·임상택·전상민
 06-R05-1 청소년 생존권 현황과 지표개발 / 이용교·천정웅·안경순
 06-R05-2 청소년 보호권 현황과 지표개발 / 황옥경·정준미
 06-R05-3 청소년 발달권 현황과 지표개발 / 이중섭·박해석
 06-R05-4 청소년 참여권 현황과 지표개발 / 강현아
 06-R06 동북아 청소년의 역사인식·국가관 비교연구 / 오해섭·De-Ping Lu·Kazuhiko Fuwa
 06-R07 청소년의 뉴미디어 이용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모바일을 중심으로 / 성윤숙·박한우
 06-R08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국내외 청소년 정보화 정책연구 / 이혜연·조정문·김아미
 06-R08-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청소년의 온라인 생활과 학업적응 현황 / 장근영·남주희
 06-R09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 윤철경·조흥식·김향초·이규미·우정자
 06-R10 청소년 유형별 복지육구 실태와 지원방안 / 김경준·김지혜·류명화·정익중
 06-R11 학교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 서정아·권해수·정찬석·김귀량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 / 김현철·김은정·손승영·이기재·박현주 (자체번호 06-R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2 주요 선진국의 가족 및 자녀사회화 지원정책 비교연구 - 영국, 프랑스, 호주, 핀란드를 중심으로 / 장혜경·홍승아·김혜영 (자체번호 06-R1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3 일본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와타나베 히데기·마츠다 시게키·무꾸오 아사코·배지혜 (자체번호 06-R12-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4 미국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김재은·김상학 (자체번호 06-R12-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5 독일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서병문 · 안드레아스헤네커 · 제스퍼 코글린 (자체번호 06-R12-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6 스웨덴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최연혁 · 피터 스트랜브링크 (자체번호 06-R12-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9-01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V / 이춘화 · 윤옥경 · 조아미 (자체번호 06-R1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9-02 가정 · 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 김은경 · 홍영오 (자체번호 06-R13-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9-03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 김영지 · 방은령 · 박정선 (자체번호 06-R13-2)

■ 수시과제

- 06-R14 청소년 생활시간 활용실태 및 변화 / 김기현 · 이경상
- 06-R15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조사 / 강병철 · 김지혜
- 06-R16 중국유학 한국청소년의 규모추정과 적응실태연구 / 김익기
- 06-R17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과 인간관계: 이동전화와 인터넷 미디어의 영향 / 류춘렬
- 06-R1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시설환경 모델개발 / 김호순 · 황진구 · 한도희 · 김종훈
- 06-R19 청소년 법의식 평가척도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김신영 · 신동준
- 06-R20 21세기 사회변화와 청소년정책의 중요성 / 고숙희 · 김영희 · 서동희
- 06-R21 고교생의 생활의식과 친구관계에 대한 국제비교 조사 / 김현철
- 06-R22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 최인재

■ ISSUE PAPER

- 06-IP01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실태와 발전 방향 / 김영호
- 06-IP02 외국의 청소년근로보호정책 연구 · 독일의 청소년근로보호법을 중심으로 / 김문섭
- 06-IP03 한국 청소년의 젠더 차이와 성차별 : 현황과 과제 / 손승영
- 06-IP04 사이버 상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이버 윤리지수 개발 · 평가 / 김성벽
- 06-IP05 청소년의 휴대전화 문제행동 현황과 과제 / 성운숙

■ 용역과제

- 06-R25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및 참여권 확보방안 연구 / 최창욱 · 조혜영
- 06-R26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국제회의 / 성운숙 · 이해연 · 이창호
- 06-R27 제10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 보고서 / 서정아 · 김경준 · 이춘화 · 김귀랑
- 06-R28 청소년육성기금지원사업(1차) 평가 / 김현철 · 백해정
- 06-R29 청소년육성기금지원사업(2차) 평가 / 김현철 · 백해정
- 06-R30 청소년 문화갈등 분석 및 세대간 문화소통 방안 / 박영균 · 박영신 · 김의철

- 06-R31 2006년도 지방행정기관 청소년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김신영 · 임지연
 06-R32 제2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연구 / 최창욱 · 김영지
 06-R33 동북아 청소년문화공동체 모형정립과 교류협력 모델개발 / 오해섭 · 이민희
 06-R34 2006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만족도 조사연구 / 김은정
 06-R35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실천적 운영에 관한 연구 / 이민희 · 오해섭 · 이정현 · 신순갑
 06-R36 청소년보호 관련법령의 개선방안 연구 / 이춘화 · 서정아
 06-R37 2006년 청소년시설 종합평가 / 이민희 · 김경준 · 최창욱 · 황진구 · 성윤숙 · 오승근 · 양계민
 06-R38 2006년 청소년 백서 / 김현철 · 김기현
 06-R39 200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과제 :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실태조사) / 김기현 · 임지연
 06-R40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I / 김기현 · 장근영
 06-R41 청소년활동 참가 실태조사 연구 / 장근영 · 김기현
 06-R42 제11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 보고서 / 서정아 · 김경준 · 이춘화 · 김귀랑
 06-R43 특별지원청소년 선정 및 지원방안 연구 / 윤철경 · 김경준 · 박병식 · 정익중
 06-R44 청소년행복 · 역량 지수 개발연구 / 김신영 · 이경상 · 백해정
 06-R45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청소년직업체험활동 활성화 방안연구 / 임지연 · 김신영 · 김기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6-S01 「위기청소년 지역사회보호 현황진단 및 발전방안」 (6.17)
 06-S02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연구 workshop : 결과 부문 지표의 이론적/경험적 타당도 검증」 (6.21)
 06-S03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V 중간발표 워크숍」 (6.23)
 06-S04 「주요선진국의 가족정책 특성과 한국의 정책과제 : 영국, 프랑스, 호주, 핀란드를 중심으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I 협동연구기관 중간발표 워크숍 (6.29)
 06-S05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I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7.7~8)
 06-S06 「청소년의 가족내 사회화과정 - 한국·일본·미국·독일·스웨덴 5개국 비교」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I (8.2~5)
 06-S07 「청소년 유형별 복지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8.14)
 06-S08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8.17)
 06-S09 「동북아 청소년의 역사인식·국가관 - 한국·중국·일본 3개국 비교」 (8.18)
 06-S10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회의」 (9.6~9.8)
 06-S11 「청소년의 뉴미디어 이용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모바일을 중심으로」 (8.22)
 06-S12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현황 및 발전방안」 (9.9)
 06-S13 「청소년문제행동 종합대책 IV · 최종발표 워크숍」 (10.10)
 06-S14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최종발표 워크숍」 (10.19)
 06-S15 「청소년과 미디어」 (11.10)
 06-S16 「한국청소년행복지수」 (11.15)
 06-S17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24)
 06-S18 「청소년 활동관련 정책과 뉴 패러다임」 (12.6)
 06-S19 「경영목표 · 혁신 직원 워크숍 및 청소년정책개발 · 연구를 위한 산 · 학 · 연 정책협의회」
 (12.14~12.16)

■ 연구수행 자료집

06-M01 2005 연구보고서 요약집 / 연구기획팀

06-M02 2006년도 고유과제 실행계획서 모음 / 연구기획팀

06-M03 2006년도 고유과제 중간보고서 모음 / 연구기획팀

■ 학술지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1호 (통권 제43호) / 연구정보지원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2호 (통권 제44호) / 연구정보지원팀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봉사활동 및 동아리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연구보고 06-R12-3

미국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인 쇄 2006년 12월 12일

발 행 2006년 12월 15일

발행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배 규 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전화 (02)786-2999 대표 박진태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89-7816-653-9(93330)